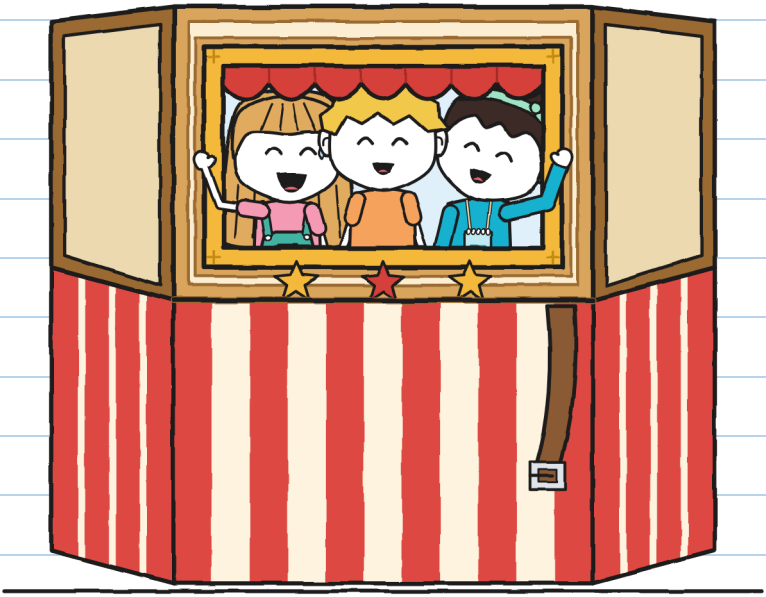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M
중급 · 9+

불가능 배달 · 6

자리 하나, 우리 셋

글과 그림: LinguAula

사이즈 M · 중급 · 9+

한국어판: LinguAula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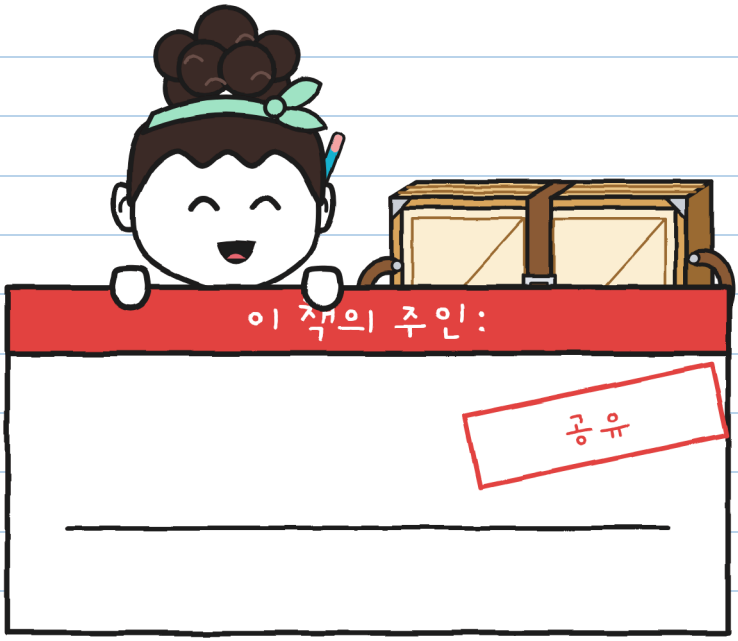
시리즈 여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케이크 하나, 우리 둘'



LinguAula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셋이서 든다. 손잡이는 골랐어. —J.



공유. 다 들어가. —J.

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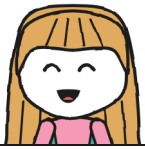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돈은 없어.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로 옮길 때는 76쪽을 봐. —J.

등장인물



구니. 센티미터로 잰다. 이번 주에는 다른 것도 센다.



훌리타. 길을 안다. 그걸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노아. 훌리타의 오랜 친구. 걸음으로 잰다. 걸음을 늘 신고 다닌다.



이레네. 연극 공방을 맡고 있다. 어디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멈춰'라고 말한다.



토뇨. 번개배송, 그리고 가게. 시간을 재고 의견은 없다. 거의.



마라. 택배를 빌려준다. 상자는 놓지 않는다.



6번 택배. 상자에 들어가는 극장. 벨트를 잡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다.



R. 보내는 사람. 이번에는 물품 목록에 한 줄을 남겼다.

배달 공책 6
주인 : 구니

공유.



공책 5는 시계 눈금판 위의 바늘 두 개로 끝났다. 이번 공책은 귤처럼 주황색이다. 가게 도장도 찍혀 있다.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나는 첫 쪽을 내 글씨로 공유했어. —J.

제1장

왜 셋이 필요할까?

월요일, 학교가 끝나고 가 보니 훌리타가 봉투를 들고 계산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록색도 파란색도 아니었다. 청록색이었고, 단혀 있었다.

"집배원 아저씨가 가져왔어. '불가능 배달 가게 앞'이라고 쓰여 있어. 안 열고 있은 지 좀 됐어."
"얼마나?"
"28분." 토요가 자기 상자에서 시계를 보며 말했다.
"동네 신기록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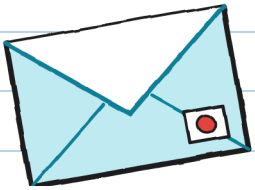


내 꺼 아니었어. 내 꺼 아닌 봉투는 세 배 무거워. —J.

마라아줌마가 손톱 하나로 봉투를 열었다.

저는 주민센터 연극 공방을 맡고 있는 이레네입니다.
물품 목록을 정리하다가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접이식 미니 극장: 미수령'
혹시 그쪽에 있나요?
3개월 토요일은 동네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접힌 미니 극장이 저희 마당에 도착하고,
세 사람으로 된 한 팀이 올려 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노아 팀에는 셋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아직은 노아 혼자뿐입니다.

폴리타: 나야! 나 이제 연극 해.
택배 잘 아는 누군가를 데려와.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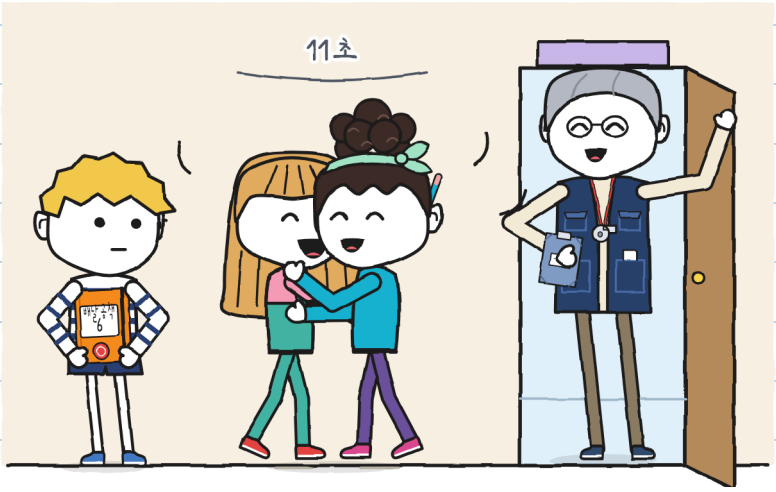


'택배 잘 아는 누군가'. 그게 나였다. '택배'는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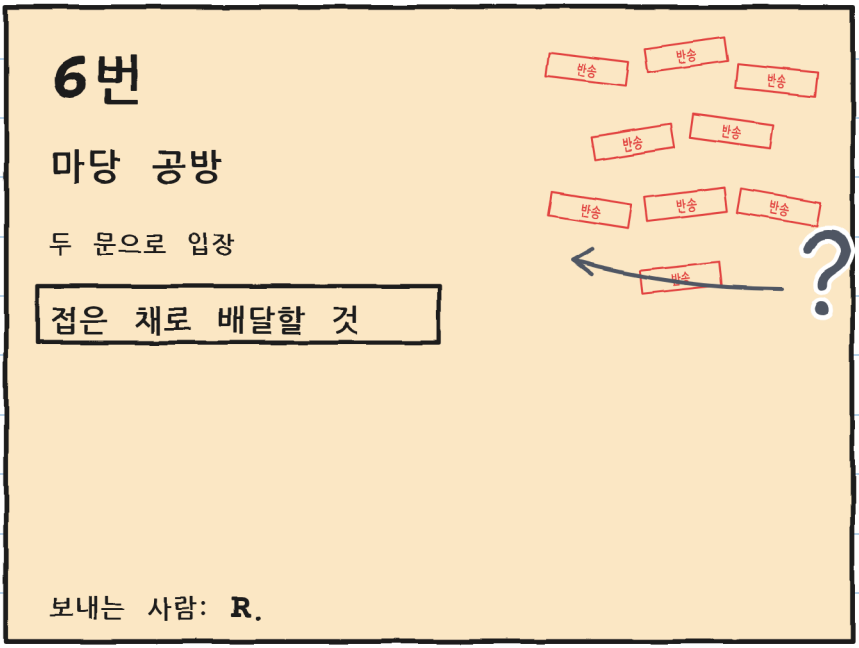
5시에 이레네 선생님과 노아가 왔다.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을 들고, 주머니가 가득한 조끼를 입고, 목에 호루라기를 걸고 있었다. 노아는 끈에 매단 수첩과 귀 뒤에 꽂은 청록색 연필을 가지고 있었다.

훌리타와 노아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어서, 나는 시간을 잴 수 있었다. 11초. 나는 공책을 들고 한쪽에 서 있었다. 공책은 이럴 때도 쓸모가 있다. 손에 들 게 생기니까.

"얘는 구니야." 훌리타가 말했다. "택배를 잘 알아."
"안녕, 택배 잘 아는 구니."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수첩에 내 이름을 적었다.



마라 아줌마는 파란 의자에 올라가 선반에서 6번 택배를 내렸다. 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



"도장이 아홉 개." 훌리타가 말했다.
"'두 문으로 입장'이래." 노아가 읽었다. "무슨 두 문이지?"

이레네 선생님은 몰랐다. 마라 아줌마도 몰랐다. 나는 물음표를 붙여 적어 두었다.

"아홉 번 갖다줬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월요일에는 바느질 모임이, 수요일에는 합창단이, 금요일에는 체스 모임이 문을 열어 줬죠. '공방이요? 여기 아니에요.' 공방 이름으로 서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에는 초인종이 없고요."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을 열어 마라 아줌마에게 주민센터 도장이 찍힌 종이를 보여 주었다.

"이제 공방이 기록부에 올라 있어요. '연극 공방. 담당: 이레네.' 공방 이름으로 서명해 줄 사람이 이제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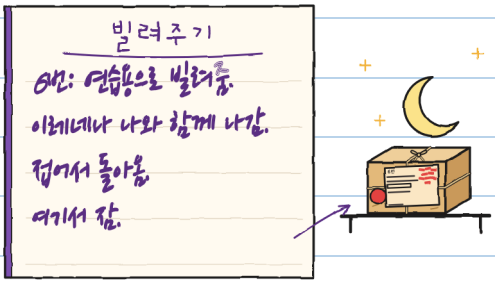


"이제 서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마라 아줌마가 엘리아 아줌마 받침대 때처럼 상자에 담아 가져다주면 안 돼요?" 훌리타가 물었다.

"내 상자에 담아 아홉 번 가져갔지. 이제는 택배를 받는 사람이 조건을 정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접이식 미니 극장은 광장에 들고 다니려고 있는 거예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길에서 이걸 들 수 있는지 봐야 해요. 못 들면 저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건 서명 안 해요."

"그 말은 빵집에서 들어 본 적이 있어요."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기록 책에 조건을 적었다. 라벨은 상자에 그대로 두고, 상자는 마라 아줌마가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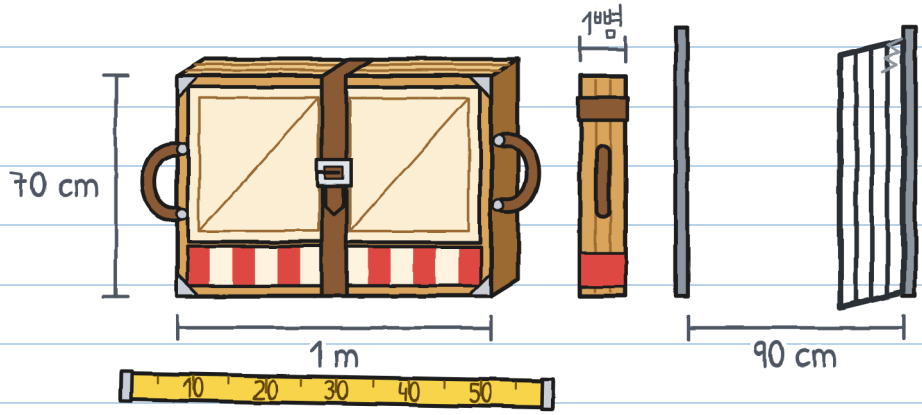


선반에서 자면, 해 뜰 때 돌아갈 곳이 없어. 아직 도장 아홉 개 그대로야. 내가 물어봤어. —J.

화요일에 우리는 주민센터 마당에 갔다. 인도에서
들어가는 곳에 저절로 닫히는 철문이 있다.

마라 아줌마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벗겼다.
상자에서 나온 미니 극장은 쑥 커졌다. 엘리아 아줌마의
받침대 때처럼. 나는 이제 놀라지 않는다. 줄자를 꺼낸다.

6번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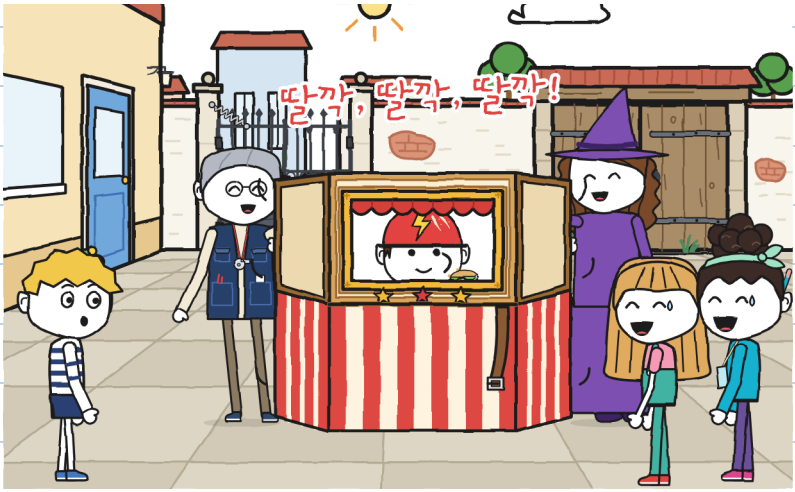


옆으로 세우면 철문으로 들어갔다. 그건 쉬운 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이레네 선생님은 빠진 곳 없이 온전한지 보고 싶어 했다. 벨트를 풀고 접힌 꾸러미를 돌렸다. 판들이 무게 때문에 저절로 펼쳐졌다. 딸깍, 딸깍, 딸깍. 벽이 세 면인 무대에, 짧은 막이 있고, 뒤쪽 판에는 틀이 달린 창이 있었다.

미니 극장의 창으로 샌드위치를 들고 지나가는 토뇨가 보였다. 입에 음식이 가득해서 인사를 못 했다.

"온전하네."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공방 규칙이야. 손은 손잡이에. 경첩에는 절대 안 돼. 그리고 회전할 때는 누군가 벨트를 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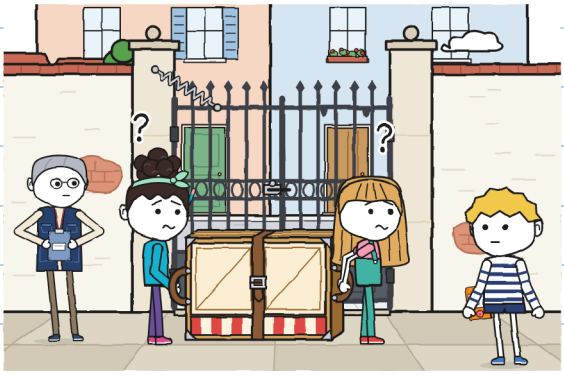
이레네 선생님과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고 벨트를 채웠다.

"저희가 해 볼게요." 훌리타가 말했다. 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둘은 셋까지 세고 들어 올렸다. 들 수 있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철문에 도착했다. 철문은 닫혀 있었다.

훌리타가 철문을 쳐다보았다. 노아도 쳐다보았다. 손은 네 개였는데 네 개 다 차 있었다.

나는 2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어 있는 두 손과 공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등으로 철문을 붙잡았다. 둘이 지나갔다. 이레네 선생님이 서류철에 뭔가를 적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이 공책의 장치를 발명했다.

셋 측정기

구간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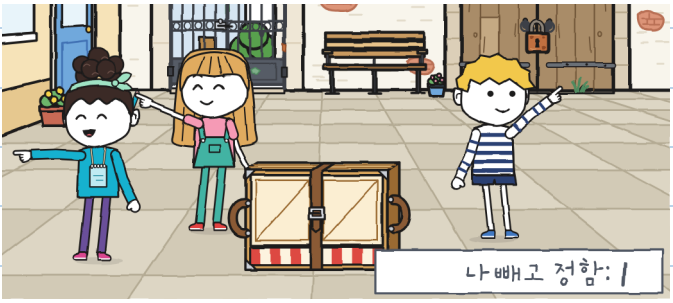
	들기 	안내 	길 열기 
마당, 첫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마당, 두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구니

이름 두 개가 겹치고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통과할 수 없다. 칸이 다 차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작은 것을 하나 더 적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두 문은 철문의 문짝 두 개야." 훌리타가 말했다.
"둘 다 열어야 해." 노아가 말했다.
"먼저 담장 바깥쪽부터 재 볼 수 있어." 내가 말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훌리타는 철문을.
노아는 공방 연습실을. 나는 길을.
"나중에." 둘이 말했다.

나 혼자 갔다. 담장을 한 바퀴 돌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돌아오니 둘은 내가 아직 이 동네에 없던 때의 일을 두고
웃고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미 정해졌어, 구니." 훌리타가 말했다. "문짝 두 개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공책도 덮었다.



그 작대기는 이틀 뒤에 봤어. 내 거였어. —J.

제2장

누가 길을 알까?

수요일은 첫 번째 경로를 갈 차례였다. 가게에서 마당까지, 길을 따라서. 내가 갔을 때 측정기는 이미 채워져 있었다. 초록색으로.

"너랑 노아는 들어." 훌리타가 말했다. "나는 안내할게. 길을 아니까. 그리고 내가 앞에서 가니까 길도 열고."
"오면서 같이 생각했어." 노아가 말했다.

초록색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작대기.

셋 측정기

	들기 	안내 	길 열기 
마당, 첫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마당, 두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구니
가게 → 마당	구니와 노아	훌리타	훌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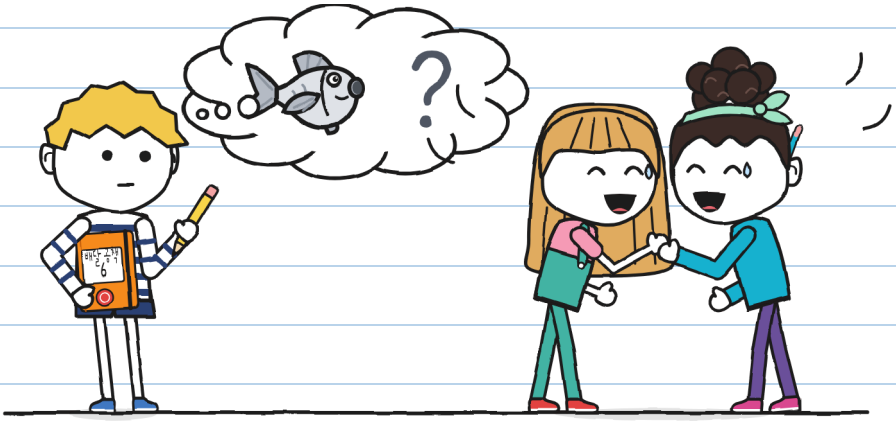
나빼고 정함: 11

"출발 전에 약도를 그려 볼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회전할 곳마다 번호를 붙여서."
"약도는 필요 없어." 훌리타가 말했다. "절뚝이
물고기까지는 쭉 직진이야."

노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훌리타도 그랬다.

"무슨 물고기?"
"절뚝이 물고기는 절뚝이 물고기야." 노아가 말했다.
"긴 이야기야." 훌리타가 말했다.
"그리고 엄청 재밌어." 노아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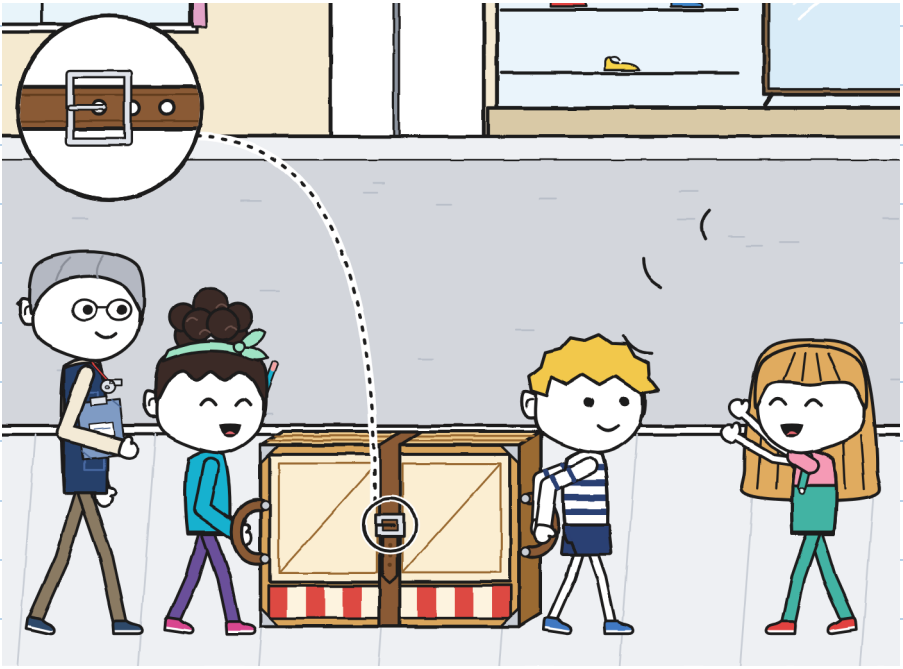
둘은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세 번째 작대기.



마라 아줌마가 가게 문 앞에서 미니 극장을 상자에서 꺼냈다. 노아가 벨트를 첫 번째 구멍에 채웠다.

"이러면 도착했을 때 더 빨리 풀려."

나는 앞에서, 노아는 뒤에서 갔다. 앞에서는 길이 보인다. 뒤에서는 미니 극장만 보인다.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과 호루라기를 들고 맨 끝에서 왔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길가 턱이 나오면 '멈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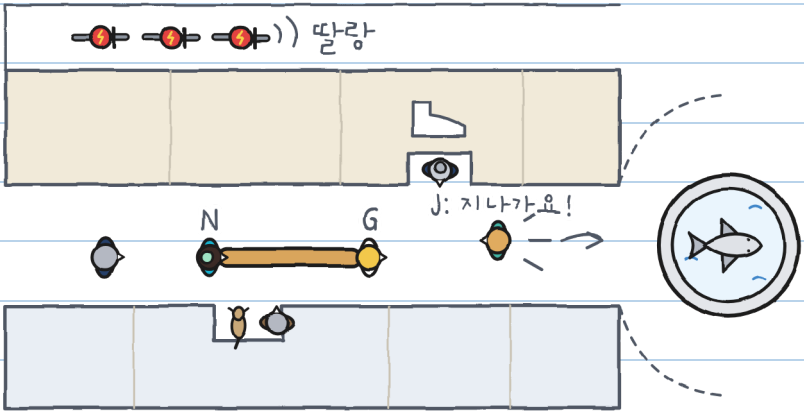


훌리타는 길을 아주 잘 열었다.

"길 좀 열어 주세요, 극장 지나갑니다!"

신발 가게 아줌마가 구경하려고 문 앞으로 나왔다. 개를 데리고 있던 아저씨가 현관에서 기다려 주었다. 멀리 동네 반대편에서 종이 울렸다. 딸랑.

"번개배송이 자기네 시합을 연습하고 있어." 노아가 말했다. "자전거로, 봉투 하나 들고. 우리는 걸어서, 이걸 들고."
"이걸 들고는 뛰는 거 아니야."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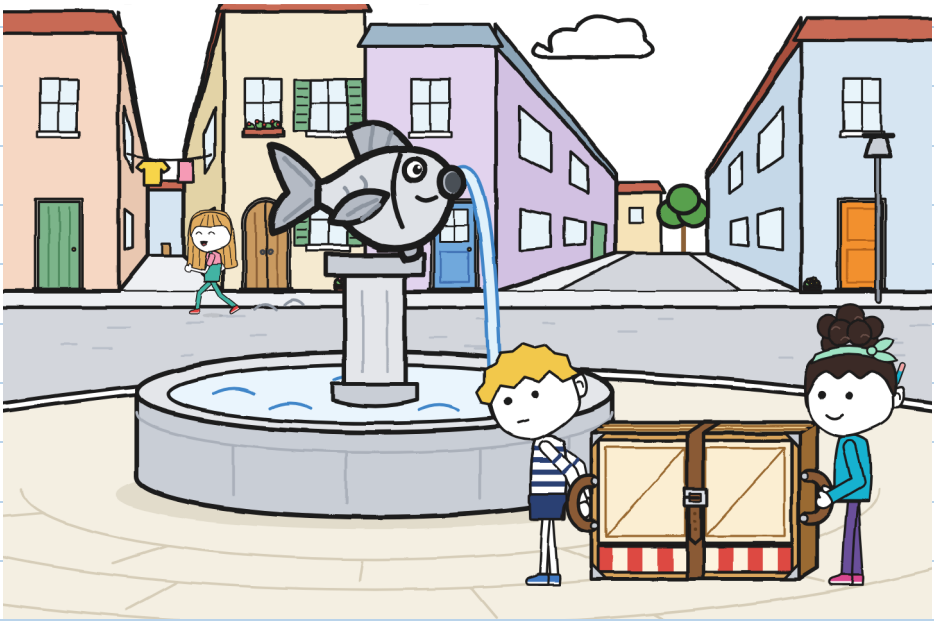


우리는 분수 광장에 도착했다. 훌리타는 뒤돌아서 안내를 외치고는, 철문을 잡으려고 주민센터 쪽으로 뛰어갔다.

"절뚝이 물고기까지 가서 꺾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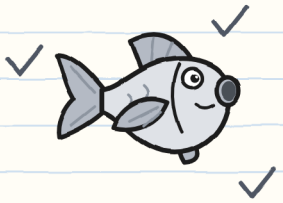
그러고는 사라졌다.

분수 한가운데에 돌 물고기가 있다. 나는 자세히 보았다. 내 쪽에서는 지느러미가 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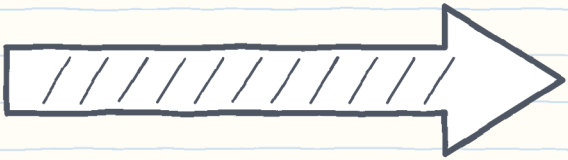


나는 서둘러 생각했다. 그건 내 특기가 아니다.

분수 물고기: 지느러미 다 보임.
절뚝이 아님.
다른 물고기가 있겠지.



껍기: 어느 쪽?
왼쪽, 좁은 길.
오른쪽, 넓은 길.
미니 극장은 넓은 쪽이 더 잘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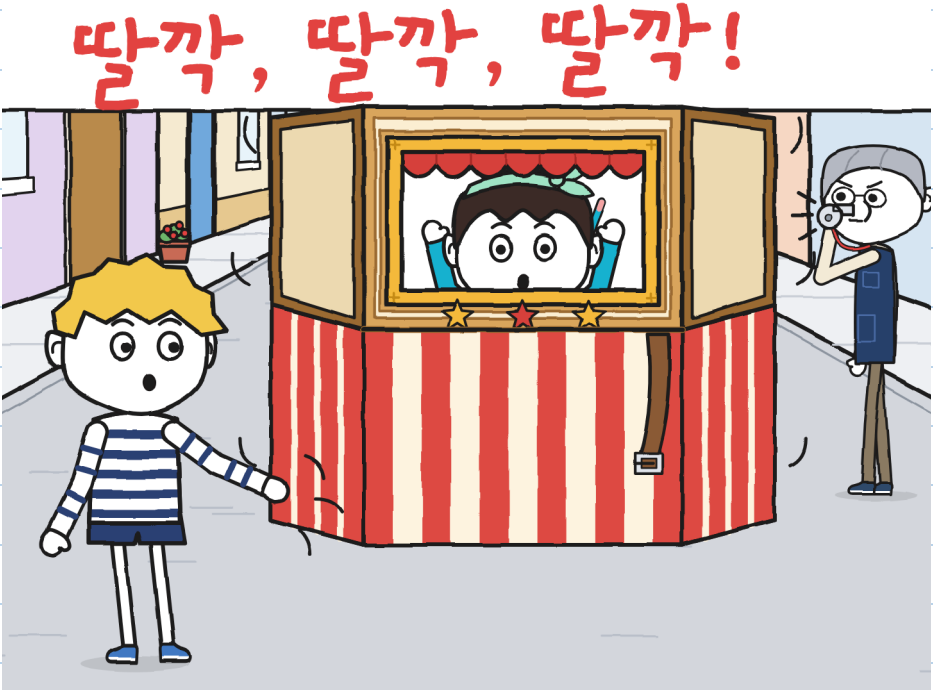


"지금 껍을까?" 내가 뒤를 보며 물었다.
"절뚝이 물고기에서!" 노아가 미니 극장 뒤에서 말했다.

나는 다른 물고기를 계속 찾았다. 없었다.
오른쪽으로 껍었다.

아무도 '회전'이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벨트를 잡지 않았다. 첫 번째 구멍에서는 버클이 오래 못 버틴다.
딸깍. 딸깍. 딸깍.

판들이 노아 둘레로 하나씩 천천히 펼쳐졌다. 이레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소리가 멎자, 길 한복판에 극장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극장 안에는 노아가 있었다.
"안녕." 노아가 창으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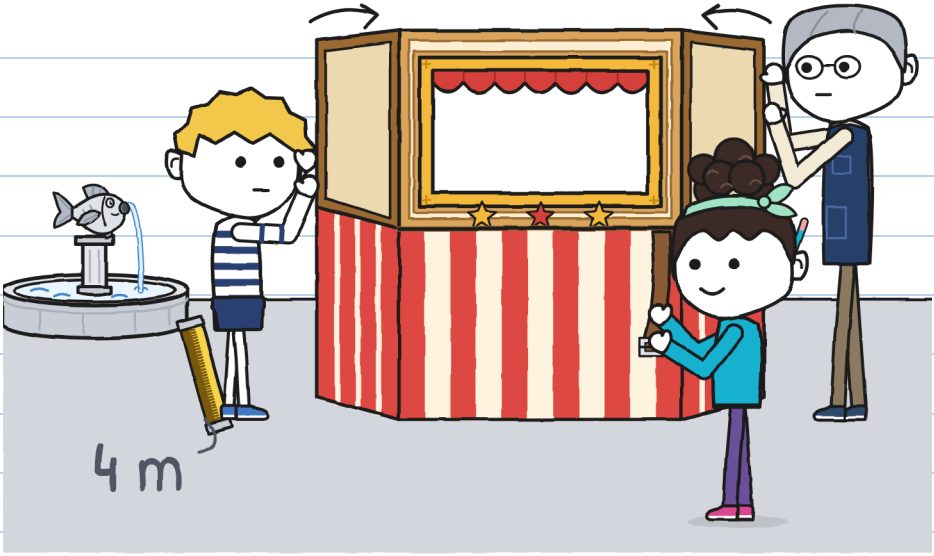


이레네 선생님은 노아의 손을 보았다. 그다음 내 손을 보았다. 모두 멀쩡했다. 판은 가볍고 천천히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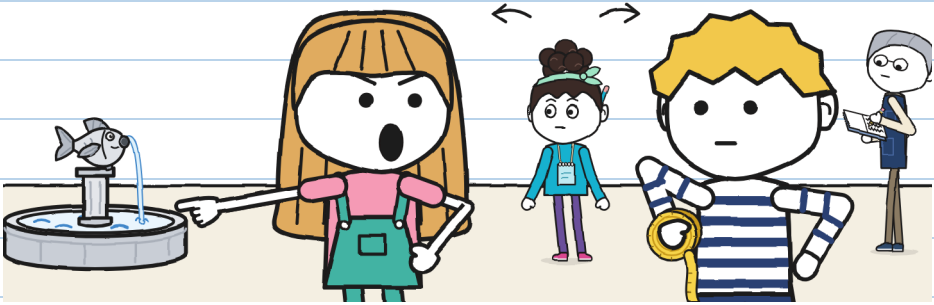
"누가 안내했니?" 선생님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안내하던 훌리타는 두 골목 너머에서 철문을 잡고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과 나는 손을 옆 막대에 대고 함께 접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재 보았다. 내 발에서 분수까지 4미터.



훌리타가 달려서 돌아왔다.
"아니, 절뚝이 물고기에서였잖아!"
"무슨 절뚝이 물고기?"
"저거!" 훌리타가 분수를 가리켰다. "왼쪽. 늘 하던 대로."
"'늘'은 내가 여기 없던 때 얘기잖아."
훌리타가 이레네 선생님 쪽으로 돌아섰다.
"구니가 길을 잃어서 그래요."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분수에서 4미터 떨어진 곳. 방금 재봤으니까. 그것도 나빼고 정했다. 네 번째 작대기.



큰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 알아. —J.

둘이 물고기의 반대쪽을 보여 주었다. 지느러미가 하나 없다. 왼쪽 것이. 그걸 보려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회전을 다시 했다. 첫 번째에는 '회전'이라고 너무 일찍 말했다. 두 번째에는 너무 늦게. 세 번째에는 맞았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차도로 번개배송이 지나갔다. 소에, 브루노, 토뇨가 한 줄로, 두 손을 핸들에 얹고. 모퉁이에서 딸랑. 셋은 멈추지도 않고 서로 닿지도 않고 분수를 한 바퀴 돌았다.

"1번 지점, 한 번에 통과." 토뇨가 지나가며 말했다.



우리가 마당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밤이었다.
마라아줌마는 미니 극장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가게로 가져갔다.

나는 오늘 일을 측정기에 적었다. 칸 세 개에 다 이름이
있었는데도 길에서 극장이 펼쳐졌다. 측정기에는 뭔가
빠져 있었다. 뭔지는 몰랐다.

셋 측정기

	들기	안내	길 열기	
가게 → 마당	구니와 노아	홀리타	홀리타	
가게 → 분수	구니와 노아	홀리타	홀리타	펼쳐짐 · 3번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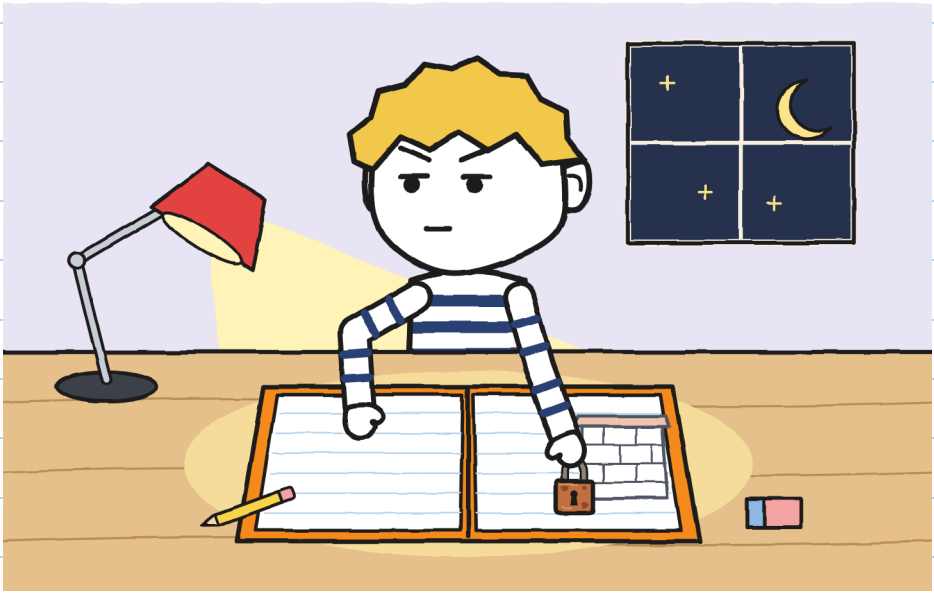
?

그 줄에 내 이름이 두 번 나와. 근데 난 두 번 다 거기 없었어. —J.

집에서 마지막 쪽에, 화요일에 담장 뒤에서 발견한 것을 그렸다. 혼자였는데도 손으로 가렸다.

생각했다. '내일 또 틀릴 거야. 그때 꺼내자.'

좋은 계획 같았다. 시간까지 정해놨다.



이 쪽은 목요일에 읽었어. 마음에 안 들었어. 수요일의 내 쪽도 마찬가지고. —J.

제3장

구니의 약도는 쓸모 있을까?

그날 밤 약도를 통째로 만들었다. 위에서 본 마당, 잔디밭장, 철문, 분수, 세 구간. 그리고 뒷면에는 화요일에 발견한 것.

약도가 아주 잘 나왔다. 네 겹으로 접어서 공책 안에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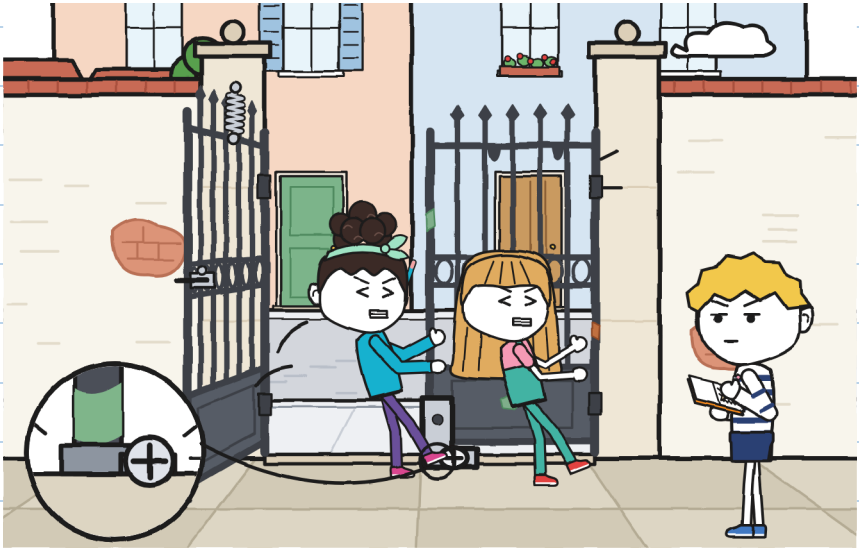
목요일, 가게에서 노아가 걸음을 세고 있었다.
"문에서 턱까지 여섯 걸음. 턱에서 가로등까지 열한 걸음."
"그건 줄자로 재는 거야." 내가 말했다.
"난 걸음으로 재. 내 걸음은 늘 신고 다니거든."

나는 노아의 한 걸음을 재 보았다. 58센티미터. 노아는 수첩에, 나는 공책에 적었다. 훌리타는 시계 두 개가 똑같은 시각을 가리키는 걸 보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았다. 나는 노아가 또 하나의 훌리타가 될 줄 알았다. 아니다. 노아는 센다.



우리는 이레네 선생님과 마당에 갔다. 훌리타와 노아는 자기들 생각을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 철문의 문짝 두 개를 다 열어 보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짝은 열리고 저절로 닫힌다. 두 번째 문짝은 열리지 않았다. 페인트 위에 페인트가 덧칠되어 있고, 바닥에는 나사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럼 라벨이 틀린 거네." 훌리타가 말했다.
"분명해." 노아가 말했다.
둘은 2초 만에 정했다. 나는 작대기를 그으려고 연필을 꺼냈다. 다섯 번째였다.



긋지 않았다.

작대기 줄을 보았다. 하나가 빠져 있었다. 화요일 담장 뒤에서 나도 아무한테도 묻지 않고 한 가지를 정했다. 입을 다물기로.

나 빼고 정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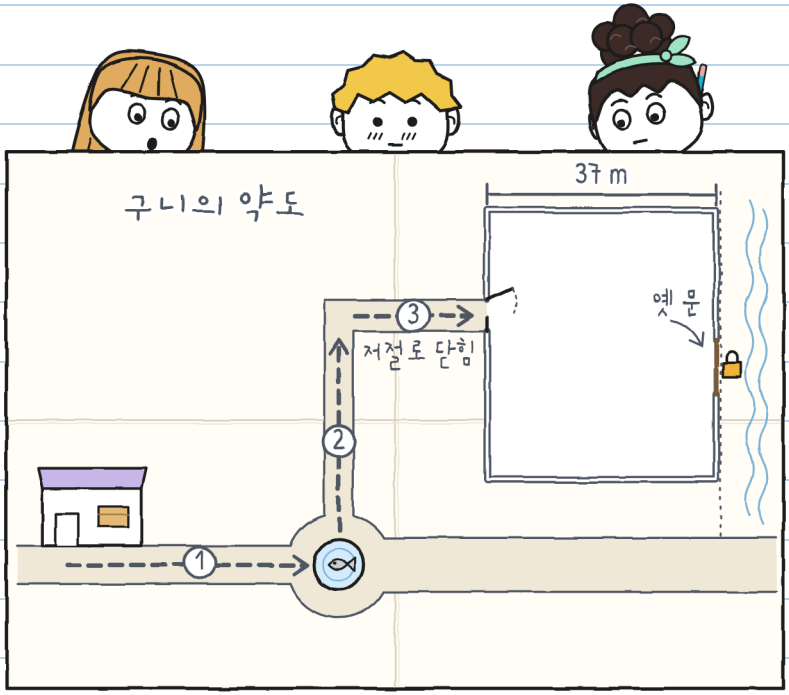
둘 빼고 정함: |



"라벨은 안 틀렸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 버렸다. "마당에는 다른 문이 있어. 마당 뒤쪽, 운하 골목에. 낡았고 자물쇠가 달려 있어. 화요일에 찾았어."

나는 약도를 꺼내 미니 극장 위에 펼쳤다.

"화요일?" 훌리타가 말했다.
"화요일. 나중에 내가 옳았다고 하려고 숨겨 뒀어."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재 보았다. 길었다.
"알았어."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 지도에
문을 베꼈다.
훌리타는 '알았어'라고 하지 않았다. 발을 까딱거렸다.
"어제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알아."

마당에는 숨을 구석이 없다. 나도 찾지 않았다. 나는
약도를 펼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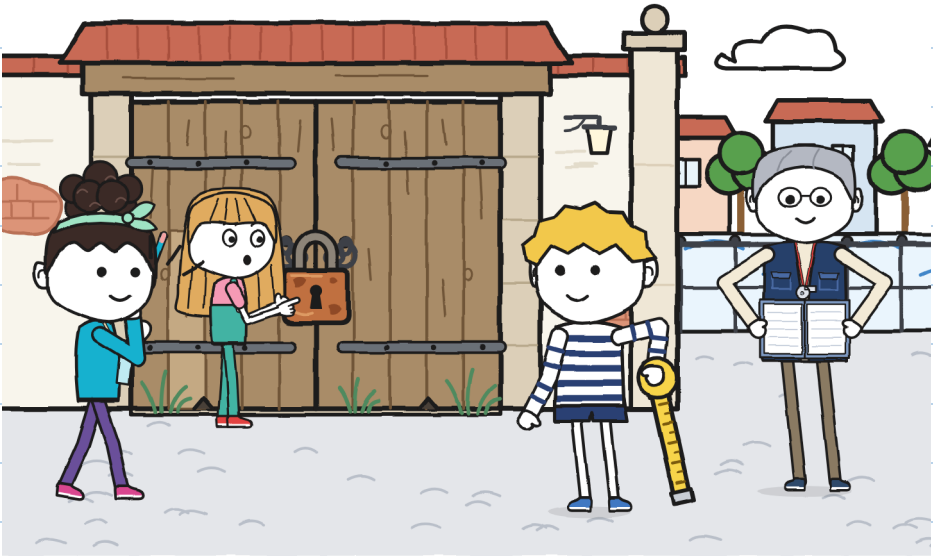


알았어라고 안 한 건 아직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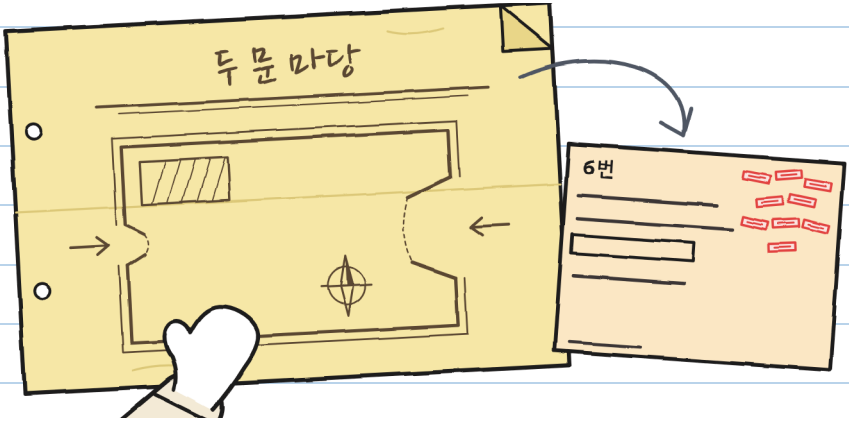
우리 셋은 이레네 선생님과 함께 그 문을 보러 갔다. 노아는 담장을 걸음으로 세었다. 예순네 걸음. 나는 이미 재 놓았다. 37미터. 같은 길이였다.

옛 문은 나무로 된 두 짝짜리 문이고, 거인의 침대처럼 넓다. 자물쇠는 자물쇠라기보다 녹덩어리다.

"이 문은 몇 년째 잠겨 있어."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본 건 늘 이 모습이었어."



이레네 선생님은 주민센터 기록부를 뒤져 노란 종이를 찾아냈다.
"여기 있네. 이 문을 쓰던 때에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곳이 두 군데였어. 철문이나 여기. 마당을 '두 문 마당'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모든 모임 중에 마당에서 연습하는 건 연극뿐이야."
"그럼 라벨은 수수께끼가 아니었네." 노아가 말했다.
"주소였어." 내가 말했다.
'마당 공방. 두 문으로 입장.' 제대로 쓴 글이었다. 그저 오래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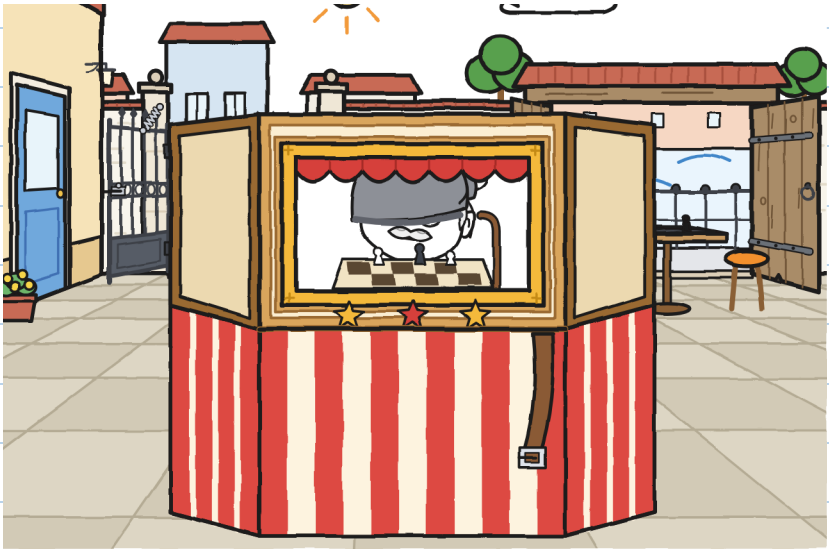


마라 아줌마는 나중에 그 자물쇠를 아홉 번 봤다고 했어. 닫힌 문은 문으로 안 쳤대. —J.

열쇠는 서류철 속 봉투 안에 있었다. '옛 문. 잃어버리지 말 것.' 이레네 선생님이 자물쇠를 열었다. 문에서 배가 삐걱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안쪽 마당에서는 체스 모임 사람들이 탁자를 햇볕 아래에 두고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은 두 문 사이에 자리가 얼마나 남는지 보려고 한가운데에서 미니 극장을 펼쳤다. 자리는 충분히 남았다.

미니 극장의 창으로 체스 모임의 안토니오 어르신이 보였다. 베레모를 눈 위까지 내려쓰고 수를 생각하는 중이었다. 코를 조금 골았다.



"토요일에는 두 문을 다 열 거야."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자전거는 운하 골목 쪽 옛 문으로 들어오고, 걸어서 짐을 옮기는 사람들은 인도 쪽 철문으로 들어와. 그러면 서로 부딪히지 않아."

"그래도 옛 문이 더 넓은데요." 훌리타가 말했다. "저절로 닫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철문은 너희 문이야. 공방이 미니 극장을 어느 광장에 가져가면 더 나쁜 문도 있을 거야."

훌리타는 입을 벌렸다. 노아를 보았다. 나를 보았다.

"넌 어떻게 생각해?"

이번 주 들어 나한테 물어본 건 처음이었다. 나는 날짜와 함께 적었다.



나는 철문이라고, 하지만 먼저 연습하고 가자고 했다.
노아도 같은 말을 했다. 훌리타는 알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쯤만 진짜였다.

그다음 측정기를 고쳤다. 칸이 세 개였는데 수요일
일에도, 내일에도 맞는 칸은 없었다.

셋 측정기 (넷 포함)

	들기 	안내 	길 열기 	알림 
마당, 두 번째 시도	훌리타와 노아	훌리타와 노아	구니	구니, 아님
가게 → 분수	구니와 노아	훌리타	훌리타	아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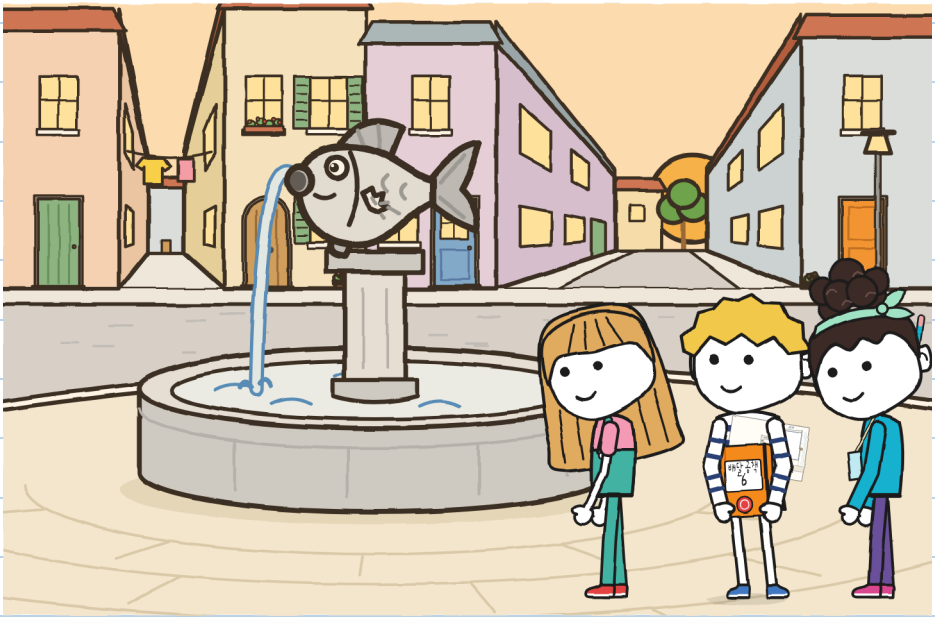

알림: 아는 걸 말하기

셋 측정기에는 칸이 넷이야. 불평은 안 해. 넷째 칸이
제일 힘들거든. —J.

우리는 분수 쪽으로 돌아왔다. 나는 물고기 앞에,
지느러미가 없는 쪽에 멈춰 섰다.

"그 이야기 해 줄래?"
"길어." 훌리타가 말했다.
"토요일에." 노아가 말했다. "도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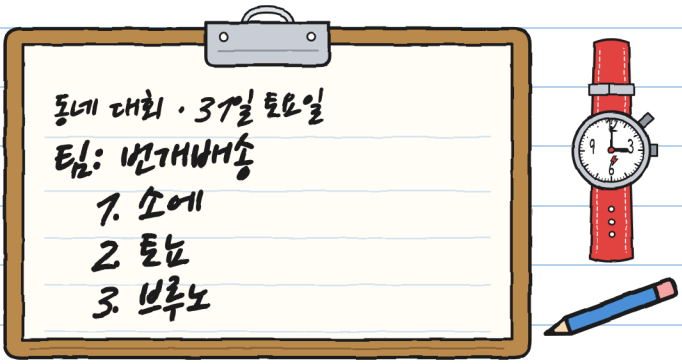
싫다는 말은 아니었다. 나는 약도를 공책에 넣었다.
이번에는 접지 않고, 반쯤 삐져나오게.



제4장

아무나 안내할 수 있을까?

금요일에 토뇨가 시계, 연필, 번개배송의 참가 신청서를 들고 가게에 왔다.



"소에가 쓴 거야." 토뇨가 말했다. "브루노가 자기 이름을 불러 줬어. '브루노, 브 자로.'"

"소에는?"

"브루노라고 썼어. 브 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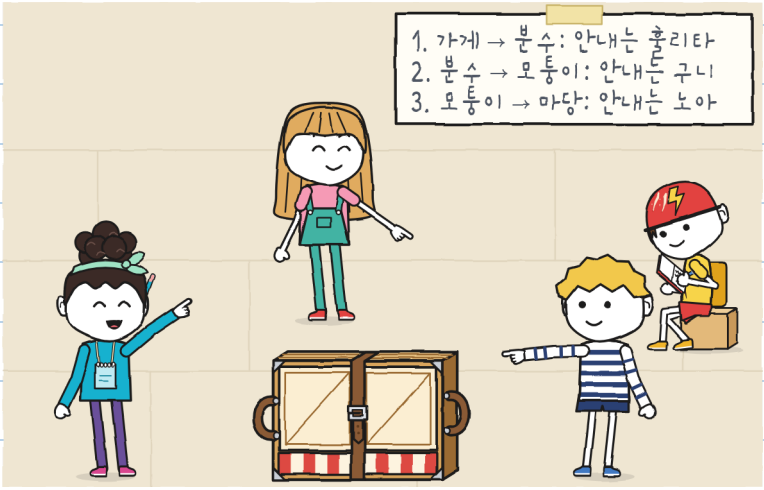
그러고는 자기 상자에 앉아 시계를 0으로 맞췄다.

"오늘은 시간을 잰다. 의견은 없어. 뭘 다시 해야 했는지만 적을게."

노아의 생각: 교대. 구간이 셋이니까 구간마다 안내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내 생각: 안내와 길 열기는 같은 사람이 맡는 것. 짐을 안 든 사람이. 나머지 둘은 미니 극장만 보이니까. 훌리타의 생각: 지금 당장 시작하기.

"첫 구간은 누가 안내해?"
우리 셋은 동시에 가리켰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가리켰다.

토쇼가 그걸 적었다. 이레네 선생님은 서류철을 들고 문가에서 기다렸다.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미니 극장을 들기 전에 훌리타가 말했다.
"한 가지만. 수요일에 내가 노아만 알아듣는 안내를 했어.
그러고서는 네가 길을 잃었다고 했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다
들어 있었으니까.

"알았어." 내가 말했다. 노아한테 배운 말이다.
"물고기는 어느 쪽 지느러미가 없어?" 내가 물었다.
"오는 쪽에서 보면 왼쪽. 분수에서 좌회전. 다섯 걸음 전에
알려 줄게."
"이게 바로 안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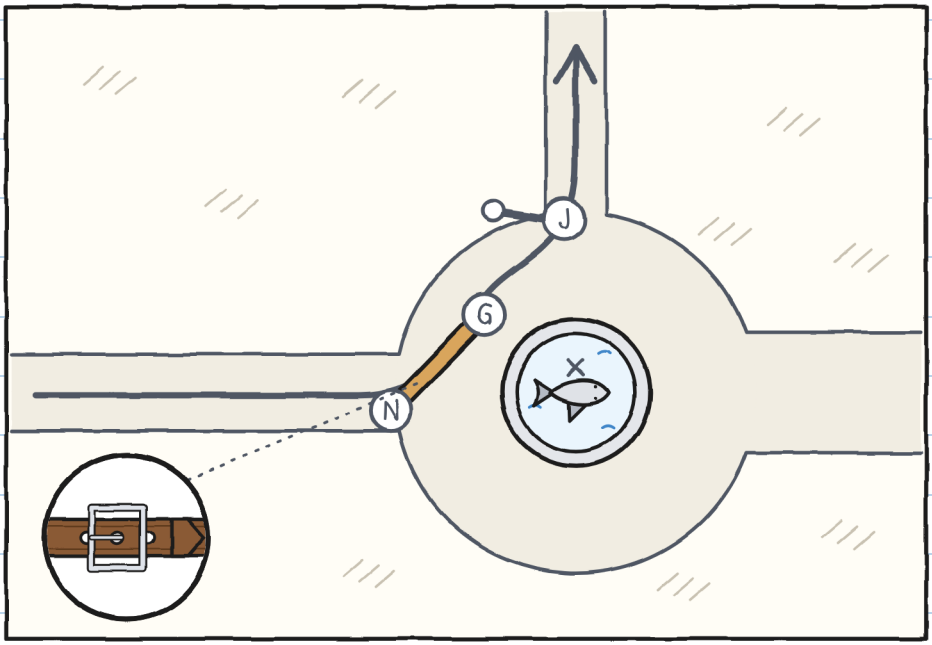
두 발 다 가만히. 그림에서 확인해 봐. —J.

첫 번째 구간. 노아가 벨트를 두 번째 구멍에 채웠다.

"다섯 걸음... 좌회전!"
"벨트!" 노아가 말했다. 그러고는 벨트를 잡았다.

우리는 절뚝이 물고기 둘레를 돌았다. 늘 해 온 것 같았다.
딸깍 소리는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첫 구간: 6분." 토쇼가 말했다. "다시 한 것: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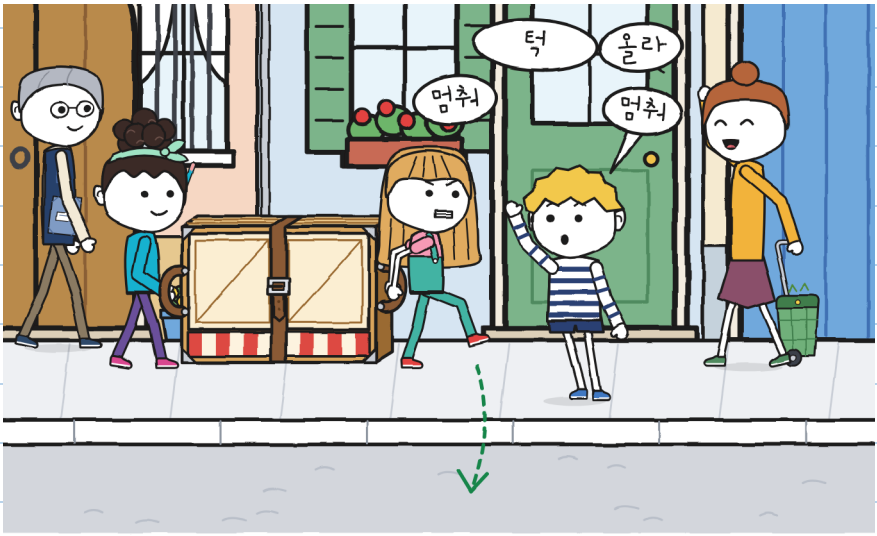


두 번째 구간, 분수에서 모퉁이까지. 훌리타와 노아가 들었다. 안내는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안내한다.

"세 걸음. 멈춰. 턱. 올라. 두 걸음. 멈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지나가세요. 네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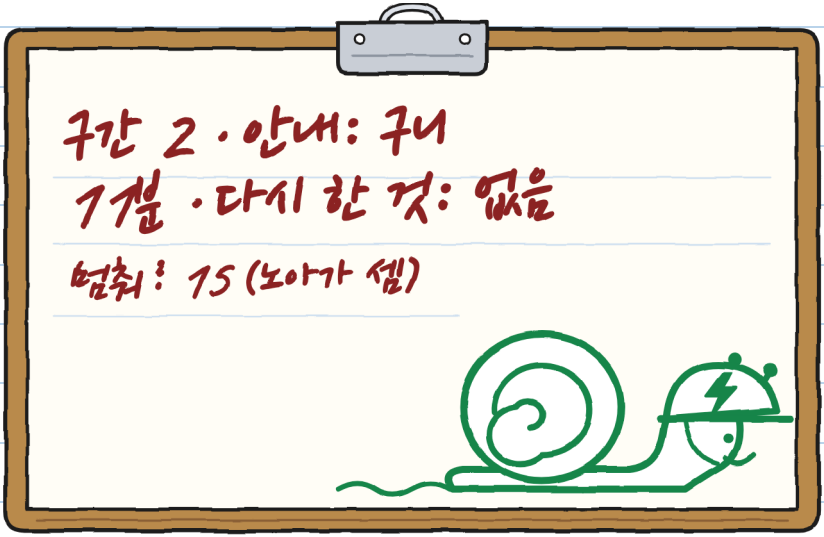
훌리타는 손잡이를 잡고 앞에서 가며 찍소리도 하지 않았다. 발이 저절로 지름길 쪽으로 갔다. 그때마다 내 길로 되돌려 놓았다.



"두 번째 구간: 11분." 토쇼가 말했다. "내가 재 본 중에 제일 느려. 다시 한 것: 없음."

내가 뭔가를 이끌었는데 다시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처음이었다.

"'멈춰'를 열네 번 했어." 훌리타가 말했다.
"내가 세어 봤어." 노아가 말했다. "열다섯 번."
"여섯 번은 안 해도 됐어." 훌리타가 말했다. "그래도 다 했어."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 이를 너무 악물어서 이가 아팠어. —J.

세 번째 구간, 모퉁이에서 마당까지. 훌리타와 내가 들었다. 안내는 노아가 맡았다. 대회 지도를 들고서. 이레네 선생님이 모든 팀에 나눠 준 지도였다.

스무 걸음 가서 노아가 멈췄다. 운하 골목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안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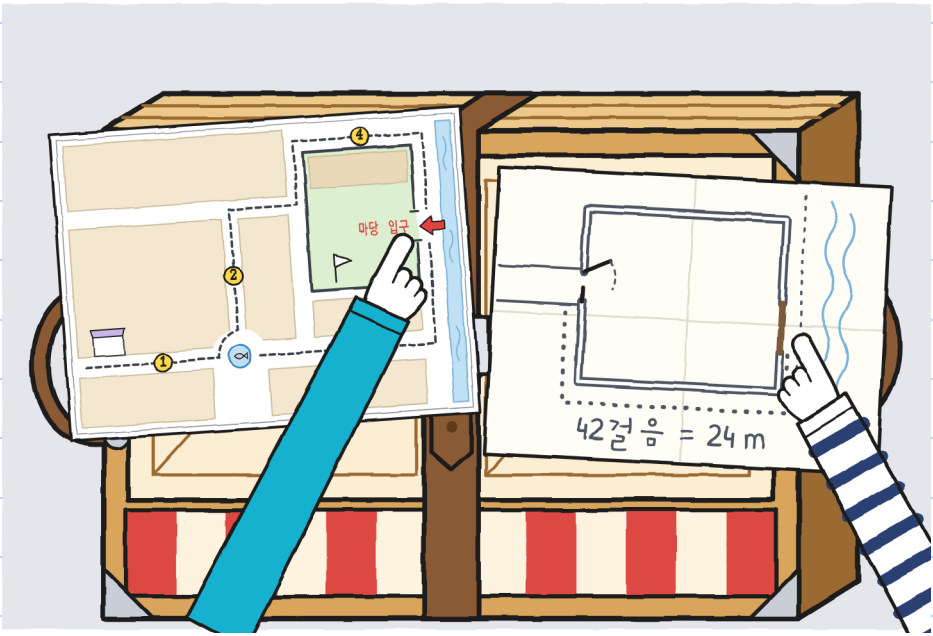
"뭐가 안 맞아?"

"지도는 우리를 여기로 들여보내. 옛 문까지. 그런데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철문으로 들어가잖아."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따진다.
내 약도를 노아의 지도 옆에 놓았다. 대회 지도에는 입구가 하나만 그려져 있었다. 철문이 아니라 옛 문이었다.
"오래된 지도야." 내가 말했다. "거기로 들어가던 때 거야."

거기서 철문까지는 노아 걸음으로 마흔두 걸음이었다. 내 줄자로는 24미터. 노아의 걸음과 내 줄자만 있으면 동네를 통째로 잴 수 있다.



"이레네 선생님한테 말할까?" 훌리타가 물었다.
"다른 팀들한테도." 노아가 말했다. "안 그러면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전부 골목으로 들어가. 자전거랑 같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의했으니까.

이레네 선생님은 지도를 한 장씩 빨간 매직으로 고쳤다.
토뇨가 자기 것을 보았다.
"번개배송은 지도에 나온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자전거한테는 지도가 맞았어. 우연히."



우리는 모퉁이로 돌아가서 세 번째 구간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철문까지. 훌리타와 내가 들었다. 노아는
안내하고, 길을 열고, 알리기까지 한꺼번에 했다.

"멈춰! 문짝 잡았어! 지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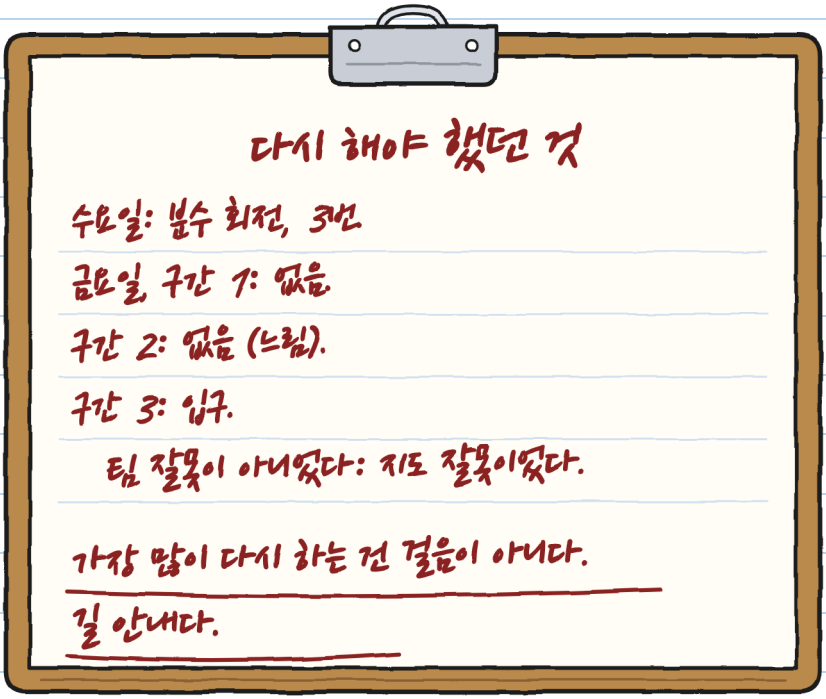
우리는 통과했다. 나는 측정기를 채웠다.

	들기 	안내 	길 열기 	알림 
모퉁이 → 마당	구니와 훌리타	노아	노아	노아: "시도가 틀렸어"

칸이 전부 채워진 첫 번째 줄. 그리고 넷째 칸, 알리는 칸은
노아가 채웠다.

철문은 무거워. 노아는 네가 화요일에 한 것처럼 등으로 잡았어. 내가
적을게. 넌 안 적을 테니까. —J.

토뇨가 자기 종이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 말은 의견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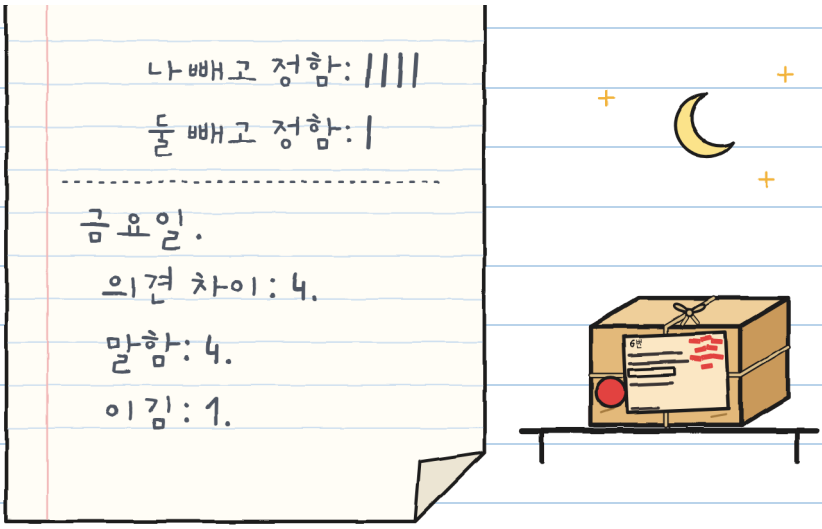
"데이터야."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길을 잘못 말하면 두 번 값을 치러. 갈 때 한 번, 돌아올 때 한 번."

토뇨는 헬멧을 쓰고 자기 시합을 연습하러 갔다. 딸랑.

밤에 가게에서 마라 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상자에 넣었다. 노아는 버클을 보았다.

"내일은 세 번째 구멍에. 풀리는 데 더 오래 걸려도."

나는 작대기가 있는 모서리 쪽을 펴 보았다. 오늘은 하나도 긋지 않았다. 의견 차이가 네 번 있었는데, 네 번 다 소리 내어 말했다. 하나는 내가 이겼다.



네가 이긴 건 먼저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따지는 거였어. 그건 선물로 줄게. —J.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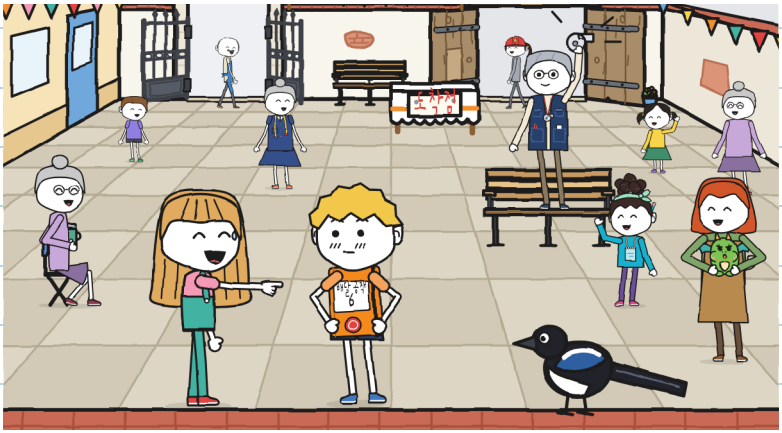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할까?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마다 입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었다.

"공책이랑 잘 어울려." 훌리타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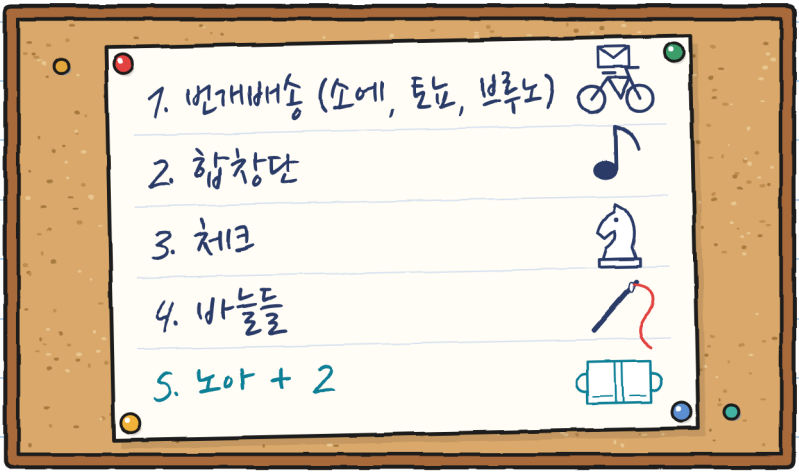
11시에 마당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 문이 다 열려 있었다. 두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레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들고 규칙을 설명했다.

"팀마다 모든 지점을 거쳐 짐을 여기까지 가져와야 해요. 짐을 들고는 뛰지 않아요. 뛰는 사람은 그 구간을 다시 해요.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을 벌어요."



명단에는 다섯 팀이 있었다. 번개배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자전거로. 합창단은 악보대를 들고. 체스 팀은 커다란 체스판을 들고. 바느질 팀은 머리 없는 마네킹을 들고.

우리 팀은 노아가 월요일에 나를 만나기도 전에 적어 둔 것이다.



"우리는 '노아 + 2'야." 내가 훌리타에게 말했다.
"나는 2야." 훌리타가 말했다. "넌 플러스고."

팀마다 자기 집이 잠든 문에서 출발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살고 뛰지 않는 안토니오 어르신이 출발 신호를 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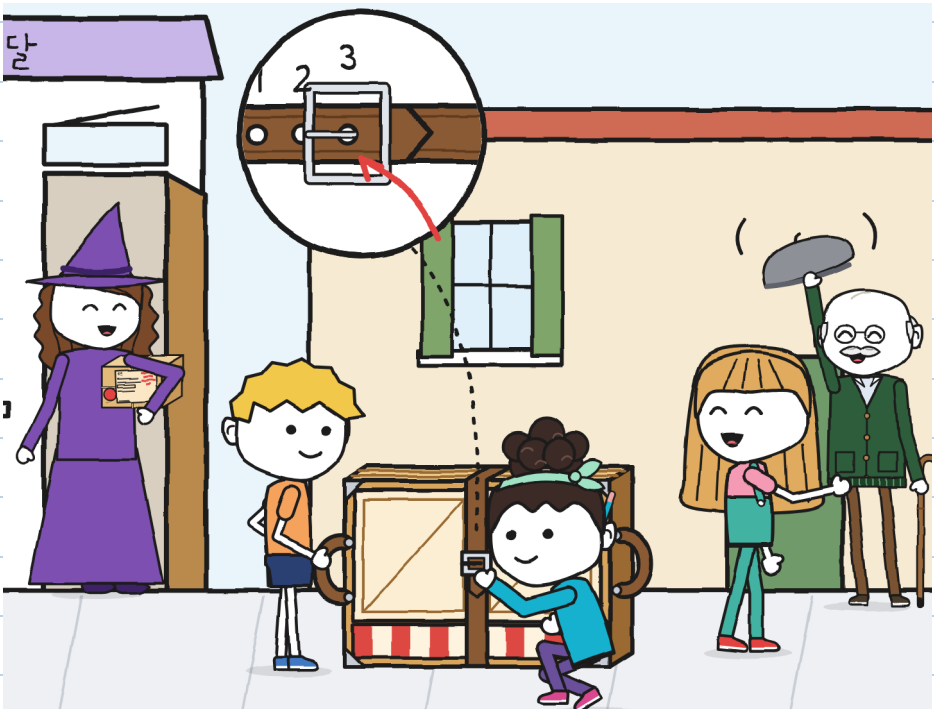
마라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꺼냈다. 노아가 벨트를 서둘러 채웠고 우리는 들어 올렸다. 딸깍. 판 하나가 한 뼘 펼쳐졌다.

"바닥에 내려놔!" 내가 말했다.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두 번째에는 노아가 천천히, 세 번째 구멍에 벨트를 채우고 잘되는지 두 번 당겨 보았다.

안토니오 어르신이 출발 깃발처럼 베레모를 내렸다.

"천천히 가거라." 어르신이 말했다. "그래야 도착한단다."



첫 번째 구간. 훌리타가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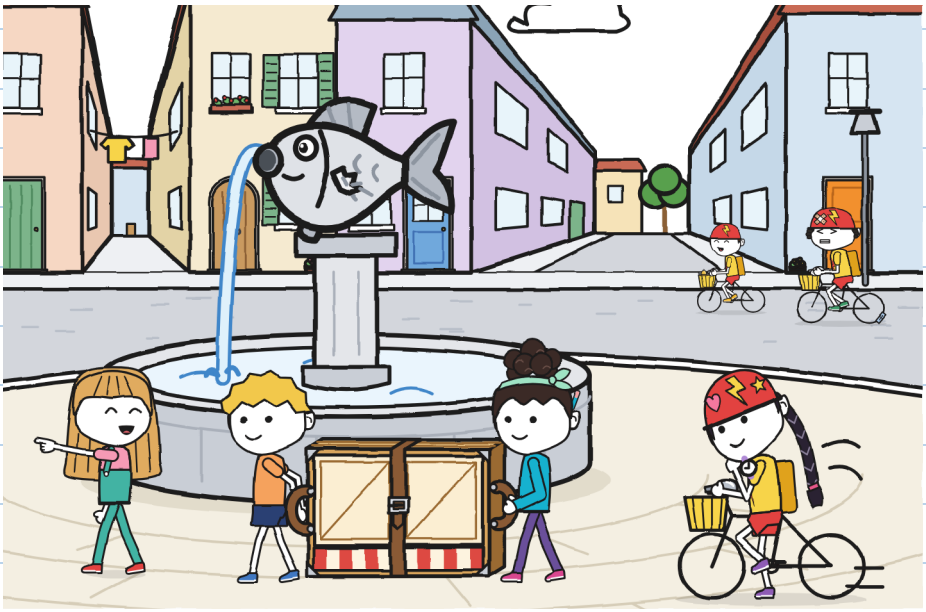
"다섯 걸음... 좌회전!"

"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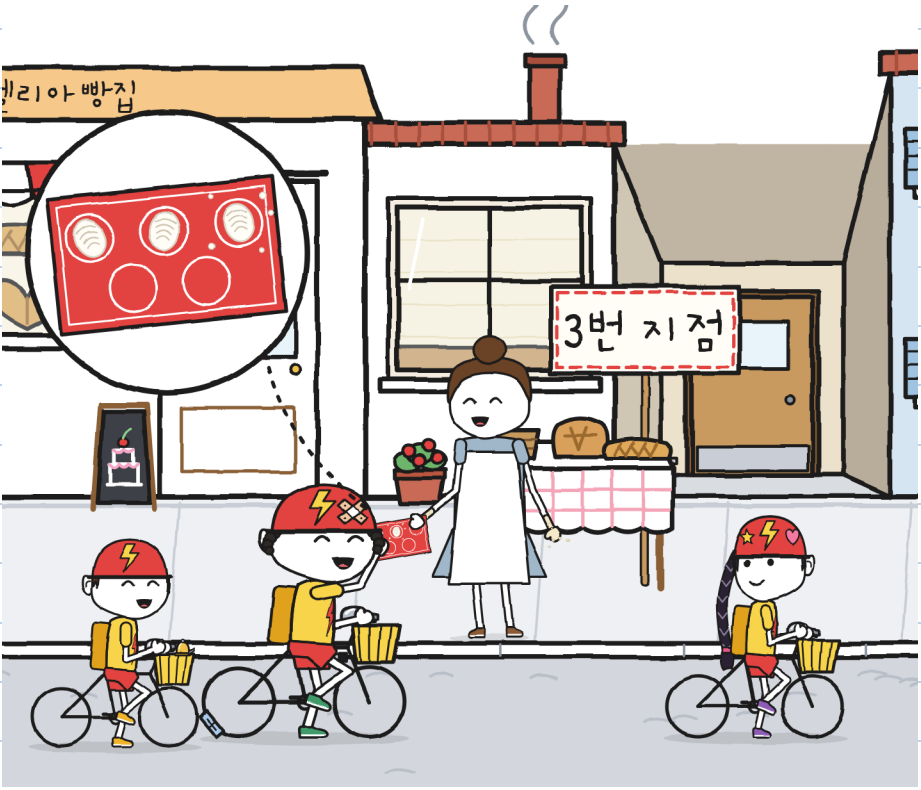
우리가 모퉁이를 통째로 차지한 채 절뚝이 물고기 둘레를 천천히 돌고 있을 때 소에가 자전거로 왔다. 모두를 제치고 맨 앞이었다. 소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한 발을 땅에 댔다.

"먼저 가. 그걸 들고는 뛰는 거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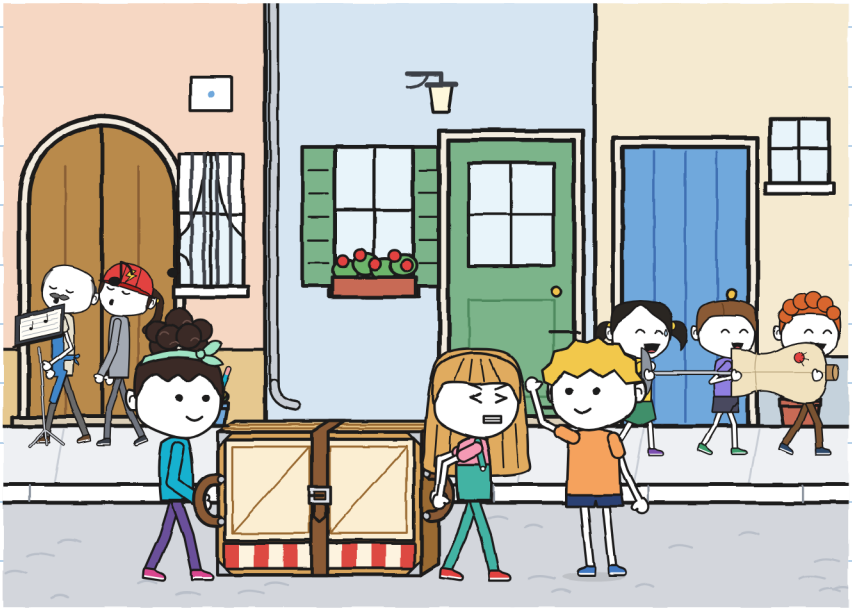
소에는 우리가 커브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다. 우리는 20초 동안 소에보다 앞에 있었다. 소에가 직접 시간을 쟀다.



지점마다 카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빵집 지점에서는 엘리아 아줌마가 밀가루 묻은 엄지로 도장을 찍었다. 번개배송은 우리 앞을 세 번 지나갔는데 번번이 다른 길이었다. 토뇨는 두 손을 핸들에 얹고 모퉁이마다 종을 울렸다. 브루노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소에는 앞에서 가다가 지점마다 기다렸다. 셋이 다 모일 때까지 카드에 손대지 않았다.



두 번째 구간에서 합창단이 악보대를 들고 우리를
앞질렀다. 뛰면서. 이레네 선생님의 호루라기가 울렸다.
합창단은 작게 노래를 부르며 분수로 돌아갔다.
체스 팀도 우리를 앞질렀다. 마네킹까지 우리를 앞질렀다.
훌리타는 뛰지 않았다. 아니, 발이 저절로 나갔다.
도로 돌려놓았다.
"일등으로 도착하는 게 중요해?" 훌리타가 물었다.
"라벨에는 '일등'이라고 안 쓰여 있어." 노아가 말했다.
"'접은 채로'라고 쓰여 있지."
"턱." 내가 말했다.



세 번째 구간. 노아가 철문까지 안내했다. 거기서 미니 극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가 열어?" 훌리타가 물었다.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렸다.

우리 셋은 동시에 가리켰다. 셋 다 같은 곳이었다. 노아도 철문을, 훌리타도 철문을, 나도 철문을 가리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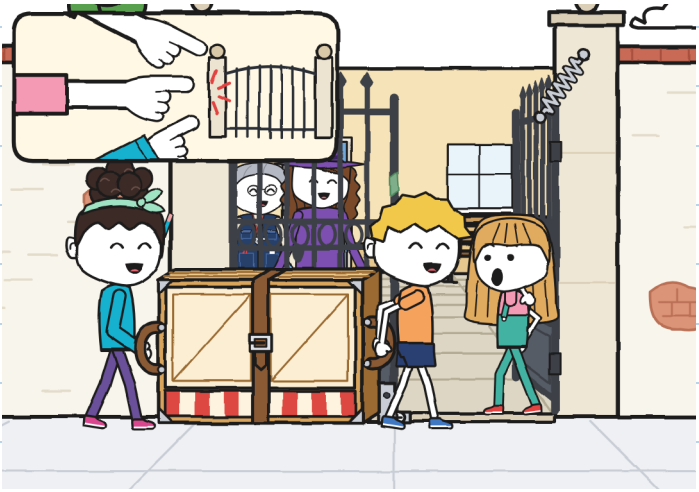
그러고는 웃었다. 이래서는 누가 할지 정해지지 않으니까.

"네가 해." 노아와 내가 말했다. 노아가 자기 손잡이 쪽에 섰다.

훌리타는 철문을 등과 두 손으로 붙잡았다.

"멈춰! 문짝 잡았어! 지나가!"

우리는 통과했다. 접은 채로. 온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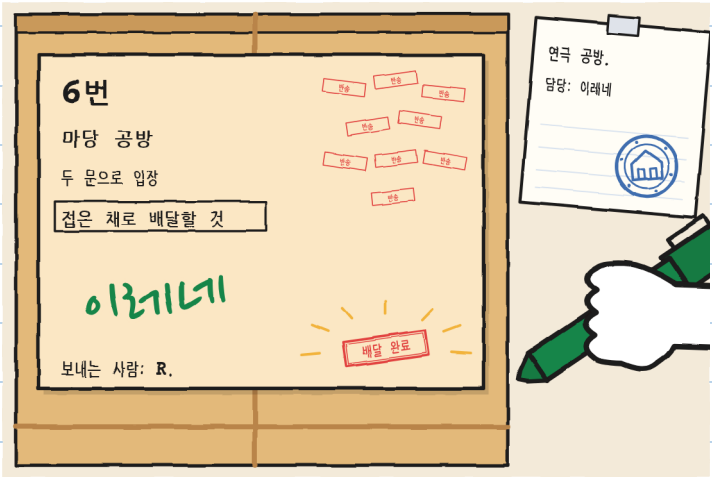


"41분."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번개배송은 14분이 걸렸다. 셋은 자전거 옆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땀도 흘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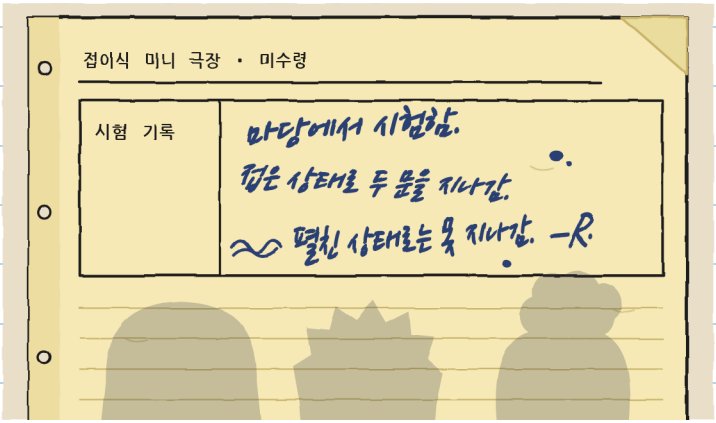
마라아줌마가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왔다. 이레네 선생님은 자기 마당 바닥에 놓인, 접혀 있고 벨트가 제자리에 있는 미니 극장을 보았다. 서류철을 열어 마라아줌마에게 기록부의 종이를 보여 주었다. 훌리타가 이레네 선생님에게 초록색 매직펜을 건넸다.

"쓸모 있네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고는 라벨에 서명했다.



라벨에 '배달완료'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아무도 쓰지 않았는데.

이레네 선생님은 미니 극장을 적으려고 물품 목록, 그러니까 주민센터 물건 목록을 열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미니 극장의 쪽이 있었고, 거기에 아주 못 쓴 글씨로 쓴 오래된 한 줄이 있었다.



"내가 공방을 맡기 전 기록이야. 누군지는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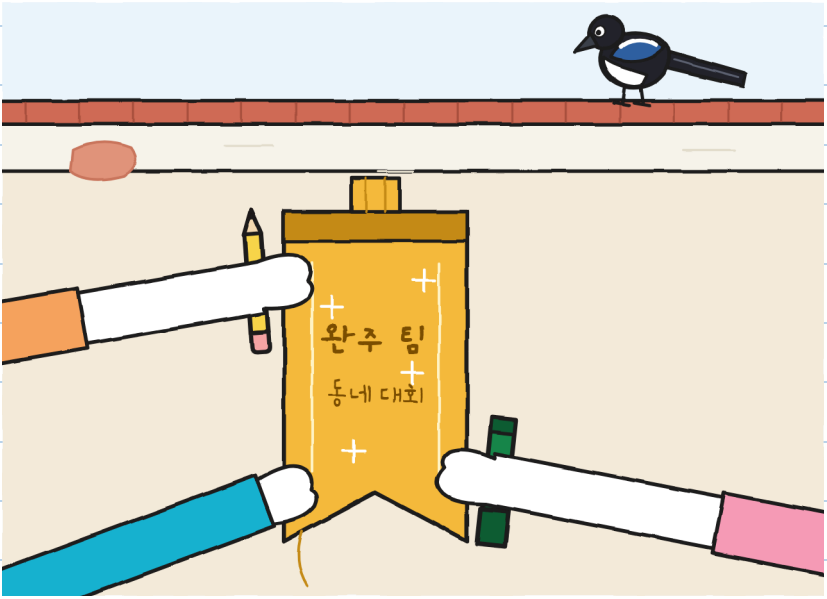
"저희도 몰라요." 훌리타가 말했다. "그래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R.은 그 마당에 와서 보내기 전에 미니 극장을 시험해 보았다. 이번에는 두 문을 쟀다. 철문과 옛 문.

엘리아 아줌마네 문. 마당의 문 두 개. 문을 재는 사람. 카드에 적어 둘 거야. -J.

번개배송이 이겼다. 한 구간도 다시 하지 않았다. 상품은 엘리아 아줌마가 구운 큰빵 한 덩이였고, 밀가루로 1이 그려져 있었다. 소에는 그걸 세 조각으로 나눴다. 브루노 몫이 소에 몫만큼 컸다.

짐을 온전하게 가져온 팀들에게 이레네 선생님은 리본을 하나씩 주었다.



"완주 팀은 맨 꼴찌로 들어오는 팀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끝까지 갔다는 뜻이야." 노아가 말했다.
"우리는 꼴찌로 끝까지 왔어." 내가 말했다. "둘 다 맞네."

"이왕 여기 있으니, 첫 공연을 해 봐야겠네요."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

마라아줌마와 이레네 선생님이 미니 극장을 펼쳤다.

우리는 그 뒤에 섰다. 연극 공연을 지어낼 시간이 2분 있었다. 노아가 역할을 나눠 주었다. 그전에 물었다.

"누가 말 조금만 하고 싶어?"

나는 손을 들었다.

부스러기가 베라아줌마에게서 빠져나와 1미터를 날아 판 위에 앉았다. 꼬리가 창 앞으로 늘어져 있었다. 벌써 공연이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공연 제목은 '들어오기 싫어하는 택배'였다. 훌리타는 종이 고깔을 모자로 쓰고 마라아줌마를 맡았다. 노아는 모든 문을 맡았다. 나는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택배를 맡았다.
"공방이요?" 노아가 말했다. "여기는 바느질이에요."
"반송." 내가 말했다.
나는 아홉 번 말했다. 관객이 세고 있었다. 열 번째에는 노아가 두 팔을 벌렸고, 나는 다른 말을 했다.
인사하려고 우리 셋이 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다 들어갔다. 꽉 끼어서.



조각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조금씩 좁혀 앉는 거야. —J.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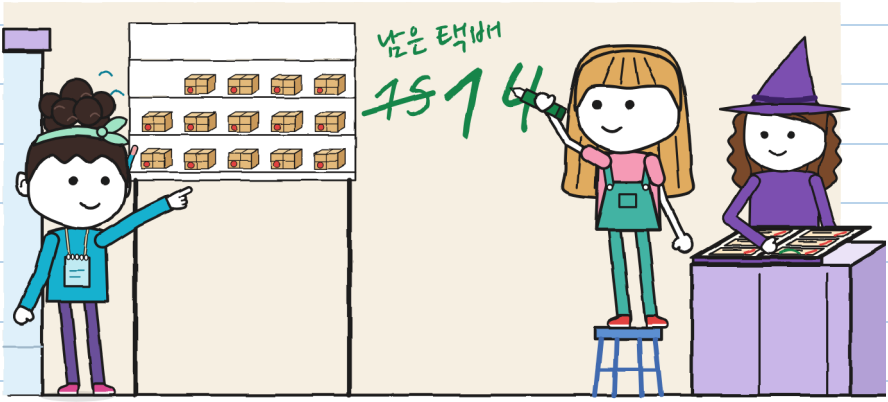
대회가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오후에 우리는 라벨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다. 노아도 같이 왔다. 훌리타는 팻말을 보았다. 그러고는 마라 아줌마를 보았다.

"제가 해도 돼요?"

"네 팻말이잖아."

훌리타는 15를 지우고 크게 14라고 썼다. 마라 아줌마는 라벨을 자기 기록 책에, 다른 다섯 장 옆에 붙였다.



노아가 작은 소리로 세었어. 열네 개가 나왔어. 셀 줄 알아. —J.

토쇼가 순위표를 가져왔다. 나는 그것을 공책에 적었다.

1등 번개배송: 소에, 토쇼, 브루노 • 14분

2등 체크 • 29분

3등 바늘들 • 33분

4등 합창단 • 38분 (한 구간 다시 함)

노아, 훌리타, 구니

5등 노아 + ~~2~~ 41분

나는 두 번 보았다. '브루노'는 지워지지도, 덧씌워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노아는 청록색 연필로 우리 팀 이름을 고쳤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월요일에는 너희 이름을 몰랐어." 노아가 말했다. "아니, 구니 이름을."

나는 R.의 카드를 꺼냈다. 단서가 열한 개 있었다.

하나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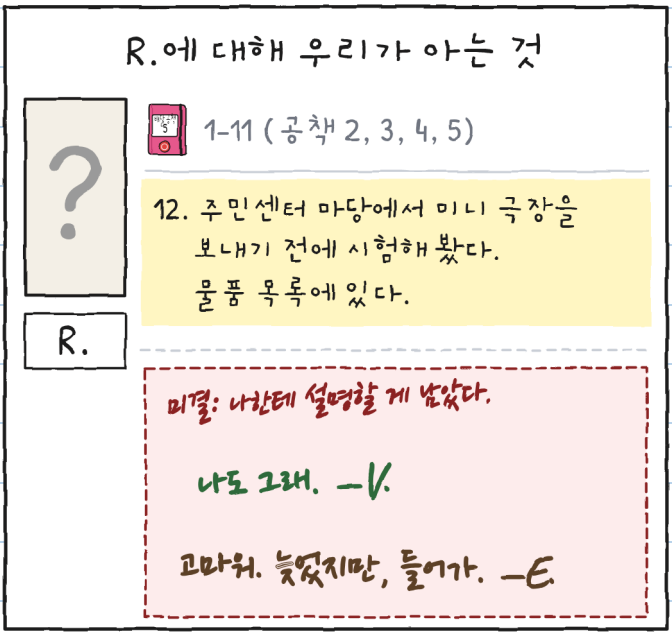
토요가 그걸 읽었다. 더 아래에 있는 자기 메모도 읽었다.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

"미니 극장은 시험해 봤구나." 토요가 말했다. "내 종은 안 해 봤고."

"그건 모르는 일이야." 훌리타가 말했다.

"내 종에 대해서는 어느 물품 목록에도 한 줄이 없어." 토요가 말했다. 그것도 사실이었다.



그다음 나는 계산대 위에 약도를 펼쳤다. 아니, 이미 접혀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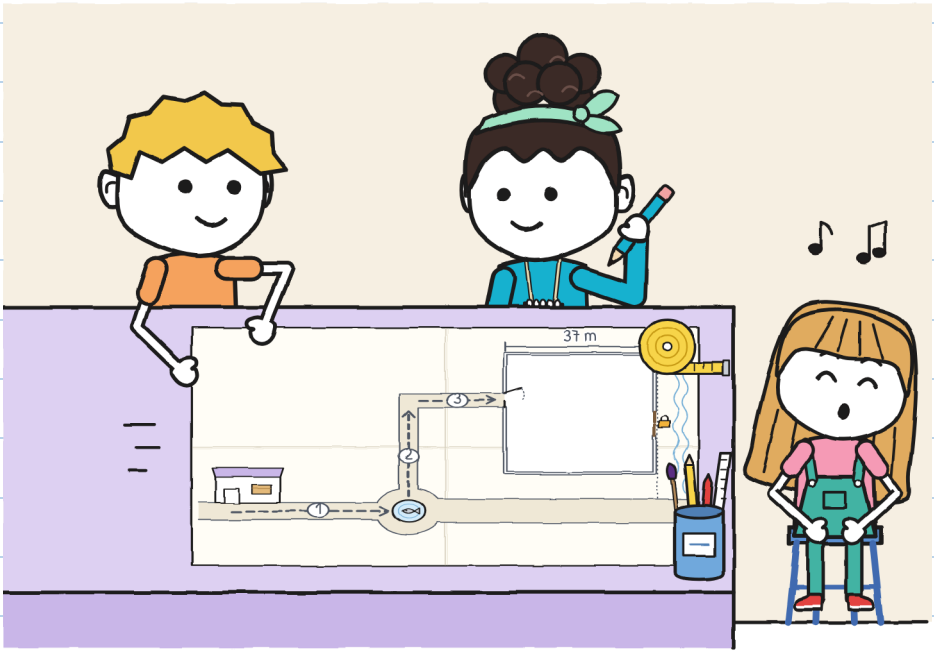
"네 몫이 빠져 있어." 내가 노아에게 말했다. "분수에서 저쪽 부분. 난 그 길들은 미터밖에 몰라."

노아가 훌리타를 보았다. 훌리타는 천장을 보았다. 끼어들지 않는 훌리타의 방식이다.

"여기에 그려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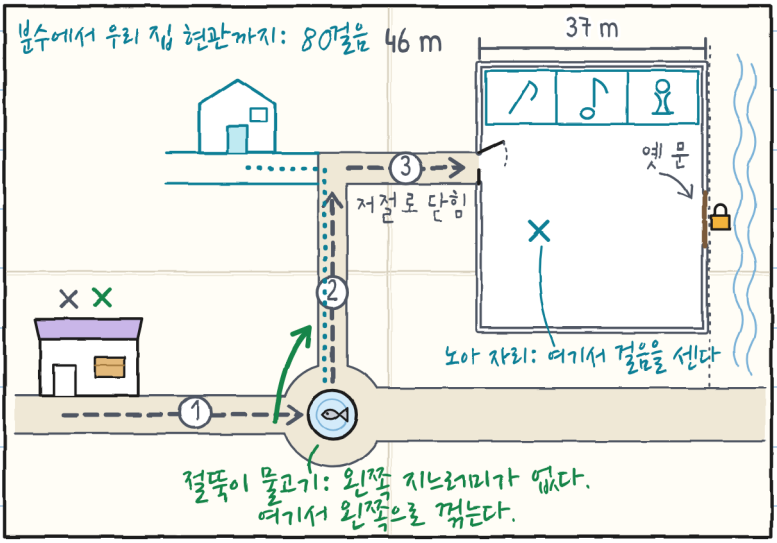
"그래서 보여 주는 거야."

노아는 귀 뒤에서 연필을 뽑았다.



노아는 자기네 길, 주민센터 안쪽, 그리고 거리를 걸음으로 덧붙였다. 나는 그 옆에 미터를 적었다. 훌리타는 더 참지 못하고 분수의 이름표를 썼다.

동네 약도 (셋의 약도)



그리고 둘이 그리는 동안 절뚝이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다. 사람들 말만큼 재밌지는 않다. 그래도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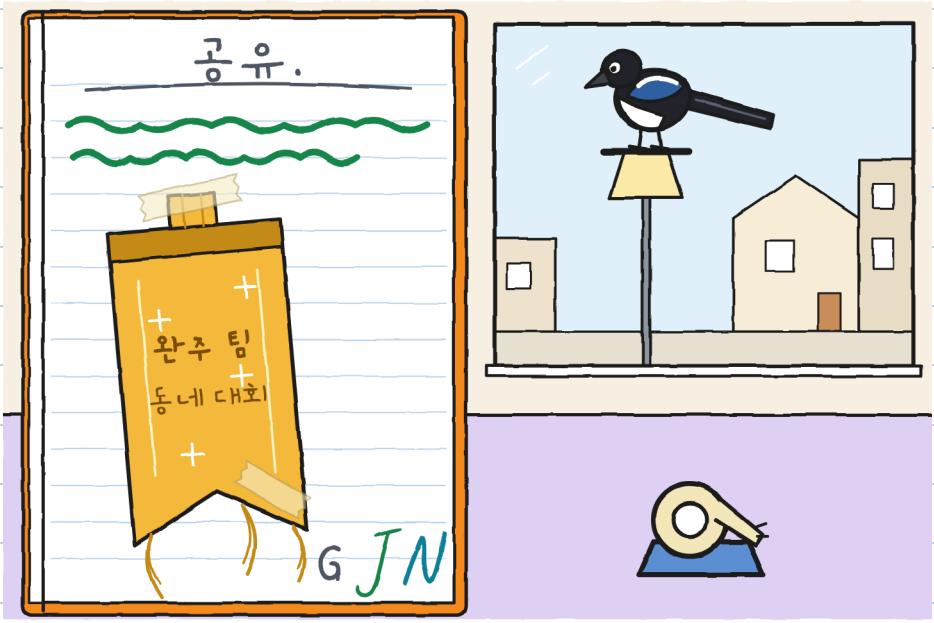
엄청 재밌어. 우리가 이야기를 엉망으로 했을 뿐이야. 말할 때 서로 말을 가로챘거든. —J.

훌리타는 리본을 손목에 묶고 있었다. 벌써 실이 세 가닥 풀려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월요일엔 실밥만 남을 거야."

훌리타가 말했다. "공책에 보관할까?"

우리는 리본을 첫 쪽의 '공유' 밑에, 양쪽 끝을 테이프로 붙였다. 나는 풀린 실까지 그렸다. 다 풀리면 풀리는 거다. 실제보다 새것으로 그리지는 않을 거다.



내 공책은 네 공책처럼 잘 안 닫혀. 그래서야. —J.

노아는 내 허락을 받고 공책을 뒤로 넘기다가 작대기가 있는 모서리에 이르렀다.

"이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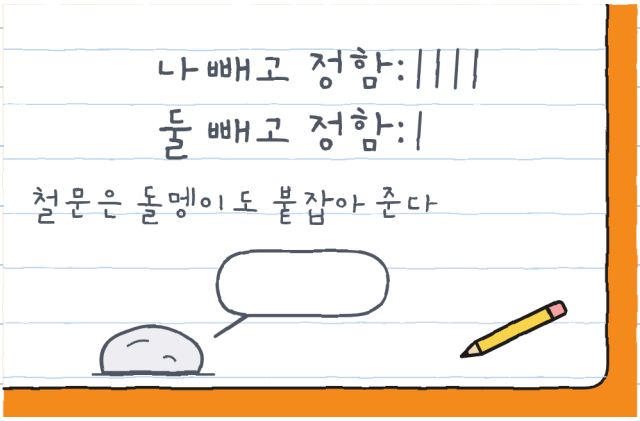
"잘못 세던 계산이야."

"그럼 이건?" 노아가 소리 내어 읽었다. "'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

"화요일에 생각한 거야."

"돌멩이는 '턱'이라고 말하지 않아." 노아가 말했다. "'멈춰'를 열다섯 번 하지도 않고."

나는 작대기를 지우지 않았다. 연필로 쓴 거라 지울 수 있지만, 지우고 싶지 않았다.



지우지 마. 조금은 내 거야.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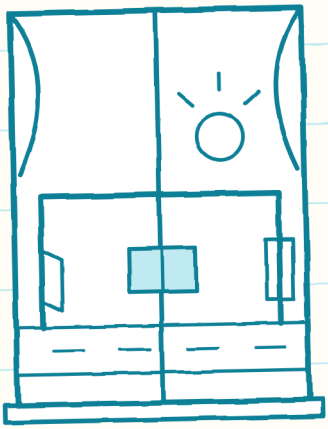
일요일 해 뜰 때에는 주민센터 맞은편에 사는 노아가 지켜보았다. 9시에 가게에 쪽지를 가져왔다. 걸음을 세면서 온 것 같았다.

7:38: 미니 극장, 공방에서, 접힌 채로.

7:44: 해가 뜸. 움직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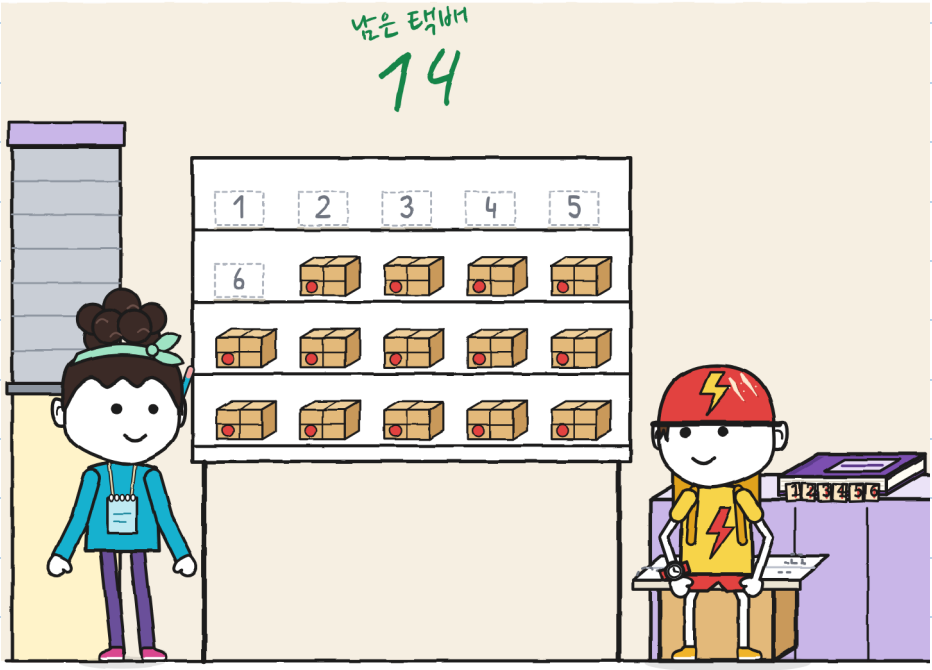
7:50: 그대로. 걸은 걸음: 0. —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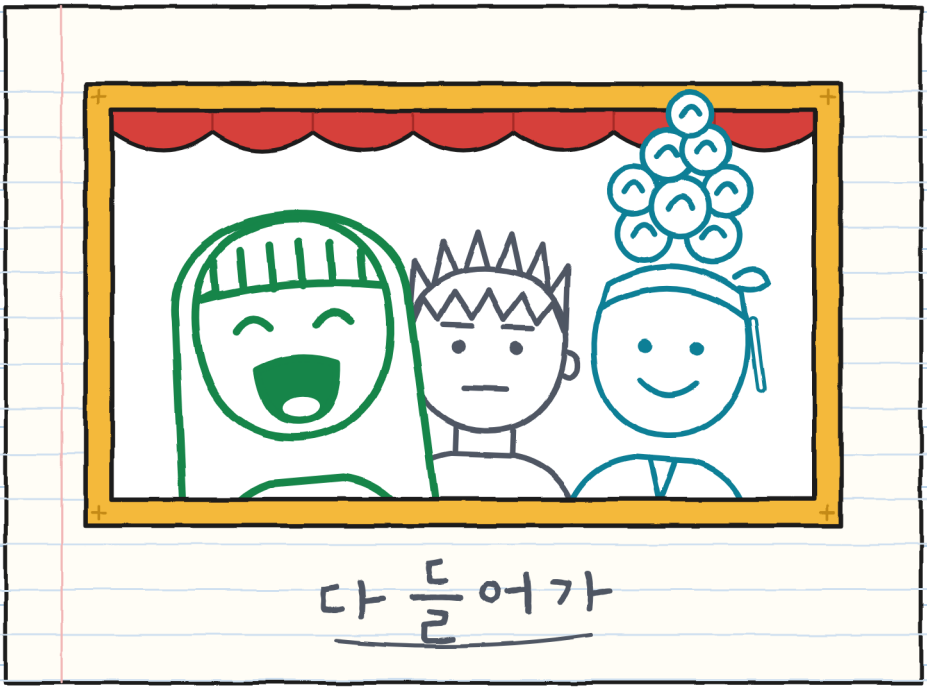
나보다 잘 지켜. 나보다 잘 세. 배방은 안 만들고. 셋 중 둘. —J.

마라 아줌마가 우리를 들여보내려고 셔터를 반쯤 올렸고,
나는 선반을 그렸다. 택배 열네 개와 빈자리 여섯 개.
팻말은 바꿀 필요가 없었다.
"여섯."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러고는 책을 덮었다.
토요는 일요일인데도 헬멧을 쓴 채 자기 상자에 앉아
있었다. 노아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노아에게 '앉아'
라고도, '가'라고도 하지 않았다. 노아는 오고 싶어서 왔고,
월요일에는 연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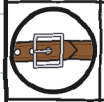
공책을 마무리하려고 미니 극장의 창을 그렸다. 비어 있는 창을.

저마다 창 안에 자기를 그렸다. 나는 연필로. 훌리타는 초록색으로. 노아는 청록색으로. 노아는 내 공책에 그리기 전에 허락을 구했다. 훌리타는 아니었다.



공유는 공유야. 첫 쪽에 쓰여 있잖아. —J.

6번 배달. 구간별로:

구간		누가 들었나	누가 안내했나	다시 해야 했던 것
	가게 → 절뚝이 물고기 분수	구니와 노아	훌리타	분수 회전 (3번)
	분수 → 모퉁이	훌리타와 노아	구니	없음 (그런데 천천히)
	모퉁이 → 마당	구니와 훌리타	노아	입구: 지도가 낡았음
	토요일	셋 모두	셋이, 돌아가며	벨트 (두 번째에, 세 번째 구멍)
	우리 전	마라, 혼자	아무도	아홉 번 운반
	R.	?	?	모른다

	들기 	안내 	길 열기 	알림 
1	구니와 노아	훌리타	훌리타	훌리타
2	훌리타와 노아	구니	구니	구니
3	구니와 훌리타	노아	노아	노아

칸이 셋. 아니, 넷. 이름은 셋. 빈 칸은 없음. —J.

불가능 배달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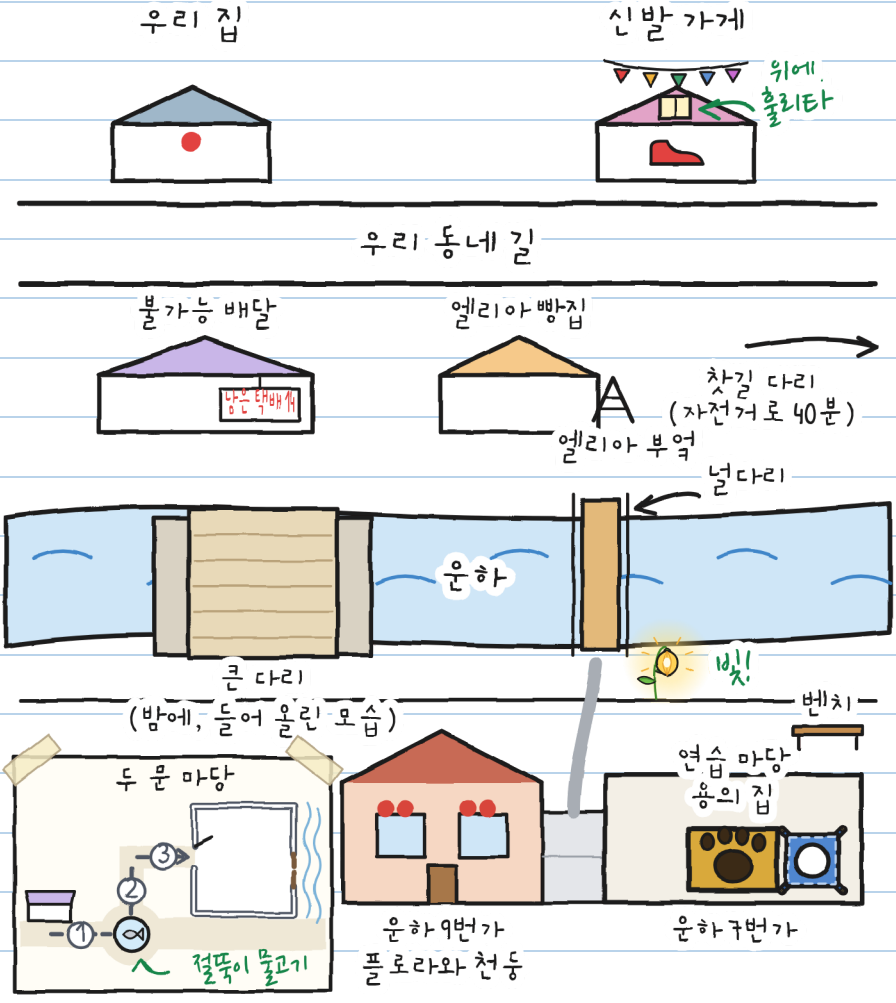
(곧 나옵니다)



이번 라벨은 내가 이미 잠옷을 입고 있을 시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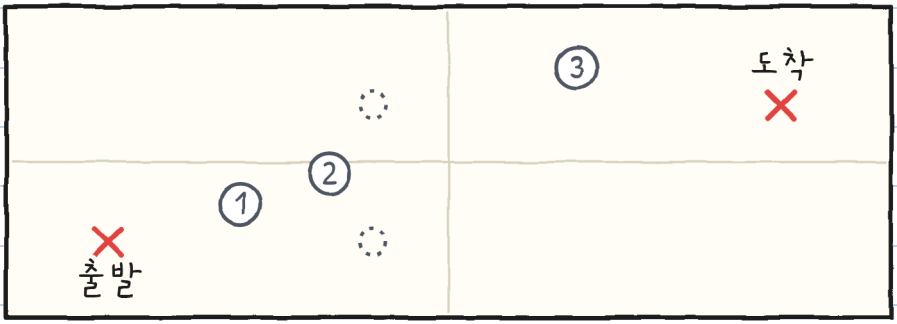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이 문 닫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나 말고. —J.

동네 (여섯 번째 판)


우리 집
신발 가게
위에 흘리타
우리 동네 길
불가능 배달
냠냠 택배
엘리아 빵집
찾길 다리
(자전거로 40분)
엘리아 부엌
널다리
운하
빛!
큰 다리
(밤에, 들어 올린 모습)
벤치
두 문 마당
연습 마당
용의 집
절뚝이 물고기
운하 9번가
플로라와 천둥
운하 7번가

너의 경로

누가 들까? 누가 안내할까? 누가 길을 열까?
누가 알릴까?



셋 측정기

	들기	안내	길 열기	알림
구간 1				
구간 2				
구간 3				

한 칸에 늘 같은 이름이 나오면 바꿔 봐.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사이즈는 여섯 가지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쪽수와 그림이 같다. XL은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방식만 다르다.

사이즈 XXS · PRE-A1
구니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자리를 남겨 뒀어. '공유'라는 단어가 보여?

사이즈 XS · A1
단어를 하나 썼다. 반 쪽은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S · A2
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M · B1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L · B2
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쓰고,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

사이즈 XL · B2-C1
삽화 소설 · 13+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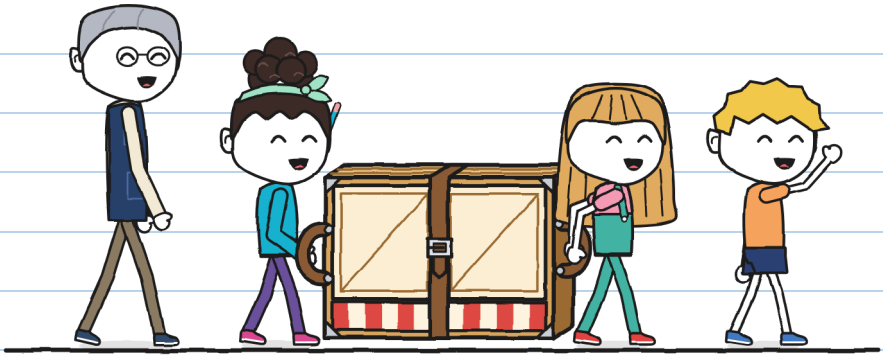
각자 자기 사이즈로. 미니 국장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진짜로 옮길 때 해야 할 일

1. 나가기 전에 길 전체를 살펴봐.
2. 한 사람은 짐 없이 앞서 가며 문을 열고 알려 줘.
3. 손은 손잡이에. 경첩과 걸쇠에서 멀리 떼.
4. 짐을 들고는 뛰지도, 겨루지도 마.
5. 누가 '멈춰'라고 하면 모두 멈춰.
6.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따져.
7. 큰 물건은 어른과 함께 두 사람이 펼치고 접어.

'이야기 속에서만' 도장은 이야기에서는 일어나도, 진짜로 옮길 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표시해.



그리고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먼저 말해. —J.